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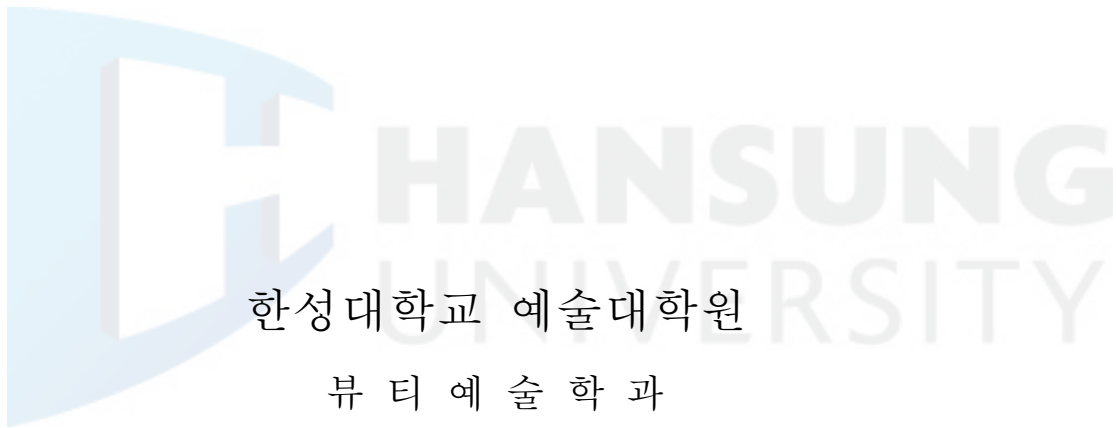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 사 학 위 논 문

얼굴이미지 유형에 따른 수정 메이크업
표현 기법에 관한 연구

2013년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전공

백 고 은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신인숙

얼굴이미지 유형에 따른 수정 메이크업
표현 기법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Representation Methods of Modification
Make-up according to facial image

2012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전공

백 고 은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신인숙

얼굴이미지 유형에 따른 수정 메이크업
표현 기법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Representation Methods of Modification
Make-up according to facial image

위 논문을 예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전공

백 고 은

백고은의 예술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 문 초 록

얼굴이미지 유형에 따른 수정 메이크업 표현 기법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분장예술전공

백 고 은

본 연구는 여성의 얼굴이미지 유형에 따른 수정 메이크업 표현 기법을 제안하고 메이크업을 통한 얼굴이미지 수정 및 보완 효과에 대한 인식과 활용도를 알아보고자 시도하였다.

여성의 외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기대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가치관의 차이는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 특히, 신체부위에서 얼굴은 자신의 내·외적인 이미지가 가장 잘 표출되기 때문에 얼굴이미지를 관리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이미지 관리의 첫 단계이며, 가장 중요한 부위로 관심이 높다.

이러한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얼굴이미지를 관상학적 이미지와 성형미인의 이미지로 분류하였다. 관상학적 황금 비율은 국제 표준 얼굴을 1 : 1.618로 턱에서 눈썹까지, 입술에서 콧방울까지, 코에서 눈까지, 얼굴 길이와 너비 등 아름다운 얼굴에서는 수없이 많은 황금 분할이 확인되고 있다 (김남희, 2010:pp.25~35). 성형학에서의 황금 비율은 얼굴이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사람은 얼굴길이를 3등분했을 때 이마의 윗부분에서 눈썹까지의 길이와 눈썹에서 코끝까지의 길이, 코끝에서 턱 끝까지의 길이가 같다. 얼굴 폭을 보았을 때에는 눈과 눈 사이의 안쪽간격과 눈의 크기가 같아야 하고, 입술의 폭은 양쪽 눈동자 사이의 간격과 같아야 한다. 즉, 1:1:1의 비

을을 보인다. 그러나 서구화된 미인형과 한국인의 미인형은 차이가 있는데 한국인의 미인형은 서구미인에 비해 코는 약간 길고 낮으며, 턱은 짧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얼굴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수행되고 있는 성형수술을 대신하여 본인 고유의 얼굴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메이크업이 이용되고 있다. 사람의 얼굴은 특징, 형태, 크기 등 개성과 관련 있는 유전적인 요소가 상당부분은 차지하지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 환경과 유행, 건강, 일상적 습관으로 얼굴 인상은 변형되며 이미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직업과 신분, 나이, 의상 및 상황과 목적 등에 어울리도록 메이크업으로 이미지를 개선하여 보다 좋은 인상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

여성의 메이크업은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대표적으로 모계시대에는 골계미와 추미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현대시대에서는 빌렌도르프 비너스 같은 비만한 여성, 21세기 스마트 워크시대에서는 감추지 않고 당당하게 풍만함을 과시하여 외적인 미보다 내적인 미에 대한 대담한 표현으로 또 다른 미적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현대사회에서의 얼굴이미지 관리는 계란형, 둥근형, 사각형 등의 관상학적 얼굴 유형 관리와 사회·문화 환경적인 관점에서 요구되는 얼굴이미지 관리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메이크업을 통한 얼굴이미지 유형 관리는 인상 중심의 전체적인 이미지 관리가 기본적이며, 얼굴 신체 부위별 색상, 형태를 고려한 조화가 가장 아름답고 자신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메이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얼굴의 결점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착시현상으로서 하이라이트와 새딩의 효과를 주고 싶은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얼굴이미지에 따른 수정메이크업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얼굴이미지 중 계란형의 수정메이크업은 가장 이상적인 얼굴형으로 귀 위에서 턱까지 사선 또는 삼각형으로 연결하여 자연스럽게 새딩해준다.

둥근형의 수정메이크업은 얼굴의 길이는 짧고 광대뼈 부위가 넓어 얼굴의 윤곽은 둥글고 이마가 좁다. 통통한 얼굴을 가름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볼의 뒷부분에 새딩효과를 이마, 턱, 콧등을 약간 세로 형태로 길게 하이라이트 효과를 준다. 긴형의 수정메이크업은 얼굴의 폭에 비해

길이가 길어 보이는 얼굴형으로서 하이라이트를 가로의 느낌으로 발라주어 긴 얼굴은 수평 분할하여 볼이 통통해 보이게 해주고, 헤어라인 부분과 턱끝선에 어두운 섀딩 효과를 주어 긴 얼굴을 커버해준다. 사각형의 수정메이크업은 각이 진 턱선과 이마 양 옆에 섀딩의 효과를 주어 얼굴의 길이에 비해 넓어 보이는 얼굴 폭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준다. T존 부위에 세로의 하이라이트 효과를 준다.

역삼각형의 수정메이크업은 이마의 넓이보다 턱부분이 좁기 때문에 양쪽 아랫볼 부분에 하이라이트 효과를 주어 통통해 보이게 한다. 삼각형의 수정메이크업은 이마 넓이보다 양볼이 아주 넓어 이마 양끝에는 하이라이트 효과를 주어 넓어 보이도록 하고 양볼 부분은 섀딩을 주어 좁아보이게 한다.

본 연구는 수정메이크업을 실제 모델을 사용하여 디자인 연구를 시도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도된 바가 없는 얼굴이미지 유형에 대한 수정 메이크업 표현 기법을 다각도로 연구하였는데 의의가 있으며, 추후 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수정메이크업의 효과와 활용도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주요어】 수정메이크업, 얼굴이미지, 관상학적 이미지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제 2 장 얼굴이미지 유형 분류	5
제 1 절 관상학적 얼굴이미지 유형	5
제 2 절 성형미인 얼굴이미지 유형	11
제 3 장 미의 가치변화에 따른 수정메이크업의 인식 변화	14
제 1 절 메이크업의 정의와 필요성	14
제 2 절 메이크업의 변화과정	15
제 3 절 메이크업의 사회적 효과	16
제 4 절 미의 가치변화에 따른 여성 얼굴 디자인의 인식 변화	17
제 5 절 동·서양 여성의 미인관의 변화	30
제 6 절 성형 선호 시대의 여성 얼굴 디자인의 변화	33
제 4 장 얼굴이미지 유형에 따른 수정메이크업 표현 기법 제안	41
제 1 절 관상학적 얼굴이미지 유형에 따른 수정메이크업 연구 사례	41
제 2 절 성형미인 얼굴이미지 유형에 따른 수정메이크업 연구 사례	46
제 3 절 얼굴이미지 유형에 따른 수정 메이크업 표현 기법 제안	53
제 5 장 결론 및 제언	86
【참고문헌】	88
ABSTRACT	92

【표 목 차】

[표 1]	보편적인 ‘이상적 얼굴’의 황금비율(국제 표준형)	9
[표 2]	관상학적 황금비율	10
[표 3]	동양 미인관의 변천과정	31
[표 4]	서양 미인관의 변천과정	32
[표 5]	이미지 상승 효과를 위한 메이크업 스타일 연구	41
[표 6]	2006년과 2012년의 한국 여자 연예인 얼굴 특징 비교	45
[표 7]	동안 메이크업	47
[표 8]	이상적인 얼굴의 황금 비율	51
[표 9]	계란형에 어울리는 눈썹의 수정 메이크업 제안	54
[표 10]	둥근형에 어울리는 눈썹의 수정 메이크업 제안	55
[표 11]	긴 형에 어울리는 눈썹의 수정 메이크업 제안	56
[표 12]	사각형에 어울리는 눈썹의 수정 메이크업 제안	57
[표 13]	역삼각형에 어울리는 눈썹의 수정 메이크업 제안	58
[표 14]	삼각형에 어울리는 눈썹의 수정 메이크업 제안	59
[표 15]	큰 눈의 수정 메이크업 제안	61
[표 16]	작은 눈의 수정 메이크업 제안	62
[표 17]	홀겹 눈의 수정 메이크업 제안	63
[표 18]	미간이 좁은 눈의 수정 메이크업 제안	64
[표 19]	미간이 넓은 눈의 수정 메이크업 제안	65
[표 20]	긴 코의 수정 메이크업 제안	67
[표 21]	짧은 코의 수정 메이크업 제안	68
[표 22]	콧등이 낮은 코의 수정 메이크업 제안	69
[표 23]	두께가 넓은 코의 수정 메이크업 제안	70
[표 24]	두께가 좁은 코의 수정 메이크업 제안	71
[표 25]	얇은 입술의 수정 메이크업 제안	73
[표 26]	두터운 입술의 수정 메이크업 제안	74

[표 27]	작은 입술의 수정 메이크업 제안	75
[표 28]	큰 입술의 수정 메이크업 제안	76
[표 29]	윗입술이 두터운 경우의 수정 메이크업 제안	77
[표 30]	구각이 처진 입술의 수정 메이크업 제안	78
[표 31]	계란형 얼굴에 따른 수정 메이크업 제안	80
[표 32]	둥근형 얼굴에 따른 수정 메이크업 제안	81
[표 33]	긴 형 얼굴에 따른 수정 메이크업 제안	82
[표 34]	사각형 얼굴에 따른 수정 메이크업 제안	83
[표 35]	역삼각형 얼굴에 따른 수정 메이크업 제안	84
[표 36]	삼각형 얼굴에 따른 수정 메이크업 제안	85



【그 립 목 차】

<그림 1> 관상학적 기본 인상	7
<그림 2> 얼굴 부위의 황금비율 측정법	8
<그림 3> 국제 표준 얼굴 구성요소의 수직 · 수평 비율	8
<그림 4> 미인의 가로세로 비율변화	12
<그림 5> 미인형의 가로세로 비율	13
<그림 6>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19
<그림 7> 다산의 여신케레스	19
<그림 8> 종교중심사회의 얼굴 스타일	21
<그림 9> 종교중심사회의 얼굴 스타일	21
<그림 10> 부계중심사회의 얼굴 스타일	25
<그림 11> 부계중심사회의 얼굴 스타일	25
<그림 12> 부계중심사회의 얼굴 디자인	25
<그림 13> 엘리자베스 여왕	28
<그림 14> 마리 드 메디시스 여왕	28
<그림 15> 왕족중심사회의 얼굴 디자인	28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얼굴이미지 유형에 따른 수정 메이크업 표현 기법에 관한 연구로서 수정 메이크업이 여성들의 얼굴이미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초점을 두고 수정 메이크업의 표현기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산업화의 흐름과 더불어 생활에 근대화로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전문화가 가속됨에 따라 자신의 이미지를 표현 할 기회가 더욱 많아진 현대사회에서 외모 표현은 대인관계 시 첫 이미지를 통하여 판단하고 기인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자기관리 영역에서 중요한 경쟁력의 수단으로 인식되어 내적인 아름다움 못지않게 외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 사람들은 외모가 개인의 능력 중 하나로 치부되고 취직이나 결혼, 대인 관계 등 인생의 주요 지점에서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로 작동한다는 점에 동의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미용성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과거 얼굴에 국한되어 있던 미용성형의 범위는 이제 신체 각 부분으로 넓어지고 있다. 대상 또한 청소년기 학생부터 노년기, 여성에서 남성까지 다양해지고 있어 미용성형 관련 산업 자체의 규모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용성형이 본 의미인 신체적인 기형의 교정으로서의 의미보다는 보여지는 아름다움에 치중된 행위로 인하여 시술 시 부작용, 반복적으로 미용수술을 하고자 하는 중독 증세를 비롯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메이크업은 이러한 미용성형으로 인한 단점을 손쉽게 보완 및 대체 할 수 있으며 자신만의 개성 표현과 이미지를 쉽게 변화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 관리 방법으로 체형·피부 관리, 의복,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등이 있으며 이 외적인 요소와 결합되어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특징이 반영된 전체적인 이미지를 완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루키즘(lookism)은 21세기에 등장한 또 하나의 차별이라 할 수 있는 외모지상주의를 일컫는 말이다. 미국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새파이어(William Safire)는 2000년 자신의 칼럼에서 루키즘을 현대의 새로운 차별 요소로 지목하며 과거에는 인종과 성, 종교, 이념 등이 세계의 불평등을 초래했지만 21세기에는 외모가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문화 현상은 미(美)에 대한 중요성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미적 본능과 욕구는 원초적 아름다움을 표현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취향을 중요시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신의 사고 방식과 행동 목적을 표현하기 위한 시각적 이미지 전달 요소인 자기 PR(public relations)에 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지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메이크업이 사회적 역할로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은, 2003:pp.35~40)은 피부와 헤어, 화장이 의사소통 이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 여성들의 화장 행동이 여성들 스스로의 자신감 향상 및 개인의 여러 사회 활동 및 대인 관계에 있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여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며, (배주윤, 2003:p.65)은 화장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성향에서 자기이해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김영란, 2010:pp.37~41)은 미용관리는 단순한 신체와 외모의 변화 향상뿐만 아니라 주체성, 자신감,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행동, 우울증, 스트레스와 관련된 사회 심리학적 변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새로운 인간성의 심리 회복 치유와 대인과의 관계적인 행동의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어 미용관리를 통해 표현되는 외모는 내적으로는 본인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고 외적으로는 아름다움을 통해 외모의 후광효과와 발산 효과를 지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한 바 있다.

이처럼 메이크업은 연령에 구애 받지 않으며 행위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움의 표출과 동시에 사회적 예의를 다한다는 잠재적인 인식으로 다른 미용 관련 행동에 비하여 이미지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성 중심의 메이크업 성향에서 벗어나 남성들도 피부를 비롯한 색조 메이크업을 행하고 있어 실생활 속 메이크업의 범위는 점점 더 넓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용성형 메이크업에 관상학을 응용한 수정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는 시도된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상학을 응용하여 얼굴유형에 따른 이미지 보완 및 수정 메이크업 기법을 제안하여 이를 통한 이미지 변화에 따른 미용성형과 같은 효과에 대한 활용도를 알아보고자 하며, 외모 관리의 올바른 인식 및 외모 이미지 구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는 첫째, 선행 관련 문헌을 통하여 메이크업의 필요성 및 변화 추이에 따른 메이크업 트렌드와 관상학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현대 사회문화에서 외모 관심도와 외모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효율적인 미용성형 메이크업을 위하여 미의 기준인 국제 표준 황금 비율에 따라 얼굴 유형별 수정메이크업과 관상학적 피흉추길(避凶趨吉)을 도출하여 작품을 제시하여 이를 통한 이미지 변화로 수정 메이크업으로써 올바른 외모 관리에 대한 인식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 1장에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범위와 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 2장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한 얼굴이미지 유형을 관상학적, 성형미인의 관점에서 제시하였으며, 제 3장에서는 얼굴이미지 수정메이크업의 인식의 변화를 제시하였고, 제 4장에서는 얼굴이미지 유형에 따른 수정메이크업 표현 기법을 제안하였다. 제 5장에서는 본 연구의 종합적인 결론 및 제언을 통해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시각자료로는 문헌과 인터넷을 참고하였고, 주최 기관의 소장 자료 또는 연구자가 직접 제작한 작품을 첨부하였다.

제 2 장 얼굴이미지 유형 분류

제 1 절 관상학적 얼굴이미지 유형

1. 관상학의 개념

관상학은 기원전 2800년 중국 복희씨(伏羲氏)가 팔괘(八卦)를 발명하여 인생의 미래를 알 수 있는 도(道)가 생겨났다. 우(禹)나라 시대에는 낙서(洛書)가 생겨났고, 주나라 문왕시기에 주나라 사람들이 간단하게 점(占)을 치는 주역이 만들어지면서 점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문헌상에 나타난 관상학의 기원은 중국 주나라의 숙복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생겨나 여러 다른 나라 왕(王)들의 길흉을 예언했다. 숙복의 뒤를 이어 관상학을 계승한 사람은 춘추전국(春秋戰國)시대에 고포자경(姑布子卿)으로 공자(孔子)의 얼굴을 보고 장차 성인이 될 것을 예언하였다. 오늘날 상서(相書)의 이목구비(耳目口鼻)에 대한 서술은 주(周)나라 말 관상가 허부(許負)가 쓴 인륜식감(人倫識鑑)이다.

후에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에 남인도에서 달마대사(達磨大師)가 중국으로 들어와 선종(禪宗)을 일으키는 동시에 '달마상법'을 후세에 전하였다. 그 후 송(宋)나라 초기에 마의도사(麻衣道士)가 '마의상법'을 남겼는데, 관상학의 체계가 이때에 비로소 확립되었다. '달마상법'과 '마의상법'은 관상학의 쌍벽을 이룬다.

관상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기는 신라시대에 선덕여왕(善德女王) 시기에 유학과 문학이 발전한 당(唐)나라에서 유학을 갔다 온 승려(僧侶)들에 의해 전해졌다. 관상학이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널리 퍼졌던 시기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이다. 오늘날에도 관상학은 미래에 대한 호기심과 운명을 예견하고자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김종성, 2011:pp.21~27)

관상학적 얼굴이미지 평가는 골격의 형태 분석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이는 신체적인 외모와 개성의 특징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골상학이라 한다(김성희, 1990:p.45). 얼굴은 두개골의 머리 부분과 안면골의

얼굴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흔히 뇌라고 부르는 두개골은 전두부, 두정부, 후두부, 측두부를 총칭하며 인종에 따라, 연령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타나지만 그다지 큰 변화는 없다. 그러나 안면골은 소위 얼굴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광대뼈, 코뼈, 위턱뼈, 아래턱뼈로 구성되어 있고 연령에 따라 크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얼굴의 골격, 기본 구조와 이목구비의 배치를 알기 위해 골상학의 원리를 알아두는 것은 이미지 창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김은정, 2003:p.47).

관상학(骨相學, physiognomy)은 인상(人相)을 관찰하여서 사람의 운명을 판단하고 그 얻어진 결론을 가지고 피흉추길(避凶趨吉)의 방법 즉, 흉한 일을 피하고 좋은 일에 나아감을 강구하는 학문이다(동아백과, 1983:p.87). 얼굴뿐만 아니라 목소리, 체형, 손금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성격과 운세를 분석하며 주로 얼굴의 상(相)을 보는데, 이는 살아온 환경에 의해 감정이 외부로 전달되어 사람마다 얼굴의 형태가 각양각색으로 변형된다. 이러한 외부로 표출된 얼굴의 모양으로 성격을 유추할 수 있고 현실에 근거를 두고 통계학적 방법에 따르는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전해지는 다른 점술(占術)과는 근본적으로 그 유례를 달리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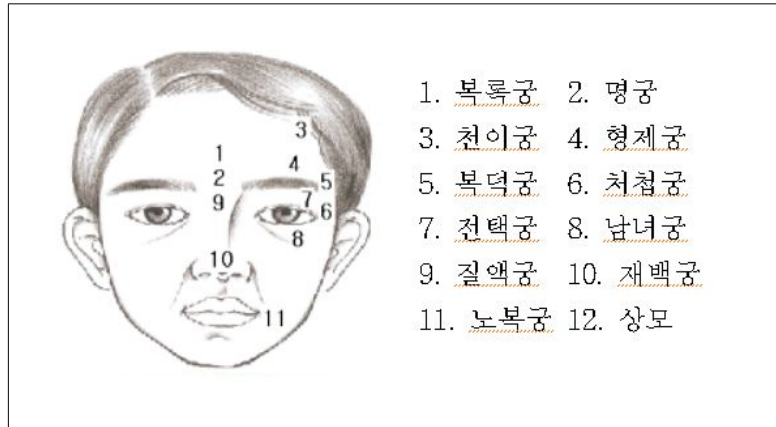
2. 관상학적 피흉추길(避凶趨吉)

1) 관상학의 구분

관상학은 기본인상(基本人相), 십이궁(十二宮), 찰색(察色)과 얼굴 이외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기본인상(基本人相)은 ① 머리·이마·눈·코·입·이·귀 등 중요한 부위를 관찰한다. ② 얼굴을 삼등분하여 위에서부터 상정(上停)·중정(中停)·하정(下停)으로 나누어 관찰한다. 십이궁(十二宮)은 얼굴을 십이궁으로 나누어 관찰하는 것으로 명칭은 복록궁(福祿宮)·명궁(命宮)·천이궁(遷移宮)·형제궁(兄弟宮)·복덕궁(福德宮)·처첩궁(妻妾宮)·전택궁(田宅宮)·남녀궁(男女宮)·질액궁(疾厄宮)·재백궁(財帛宮)·노복궁(奴僕宮)·상모(相貌:전체적인 것)이다.

찰색(察色)은 얼굴 각 부위의 혈색을 관찰해 기색과 에너지를 살펴보는, 얼굴 이외의 부분은 ① 주름살·사마귀·점·모발·신체의 각 부분 등을 관찰한다. ② 동작(動作)으로 언어·호흡·식사·걸음걸이와 앓은 모양, 누운 모양 등을 관찰한다.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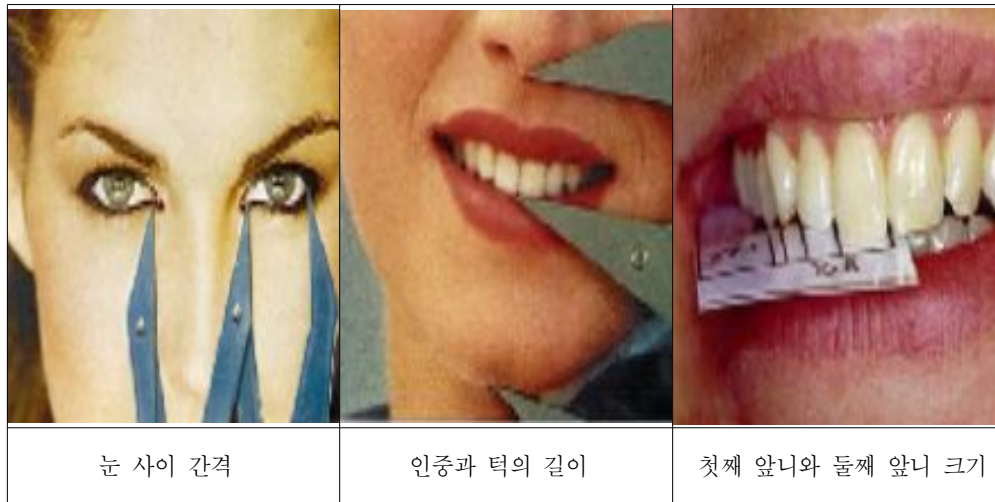


<그림 1> 관상학적 기본 인상

출처: 『동아대백과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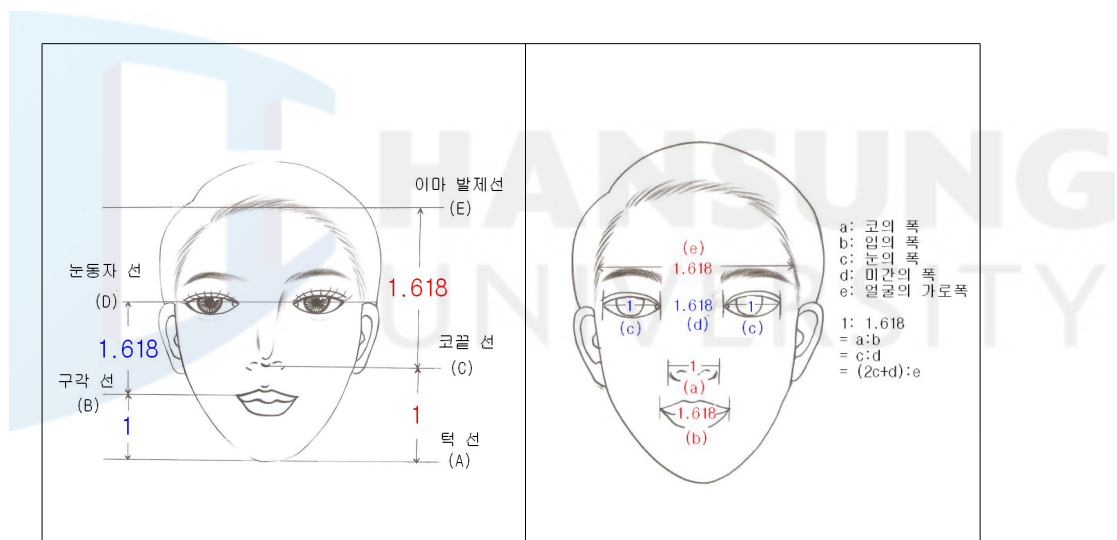
3. 얼굴의 황금 비율

보편적인 미의 기준인 국제 표준 얼굴은 1 : 1.618 의 이른바 '황금비율' 을 따르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얼굴 분석가이자 미국 캘리포니아의 성형 외과 의사인 스티븐 마퀴트(Stephen Marquardt) 박사 에 의해 황금 비율 마스크로 표현되었다. 턱에서 눈썹까지, 입술에서 콧방울까지, 코에서 눈까지, 얼굴 길이와 너비 등 아름다운 얼굴에서는 수없이 많은 황금 분할이 확인되며<그림 1>, 황금 분할을 따르는 삼각형과 오각형 그리고 십각형이 나타난다. 이를 반영하여 만든 것이 "골든 마스크 (Golden Mask)"이다. 스티븐 마퀴트는 전 세계를 9개 지역(유럽, 동부 인디언, 아시아, 아메리칸 인디언, 아프리카, 멜라네시아, 마이크로네시아, 폴리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으로 나누고, 그 지역에 사는 성인 남녀의 얼굴형을 조사한 뒤 1 : 1.618의 국제 표준 얼굴을 인간의 평균 얼굴형이라고 발표하였다(김남희, 2010:pp.37~41)<그림 3> [표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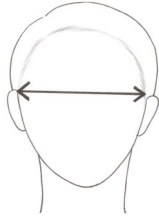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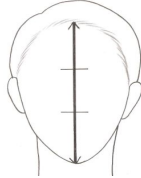
<그림 2> 얼굴 부위의 황금비율 측정법

* 출처 : beautyanalysis.com



<그림 3> 국제 표준 얼굴 구성요소의 수직 · 수평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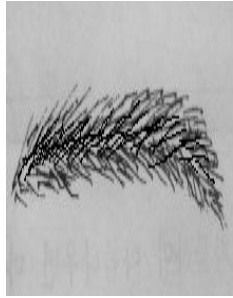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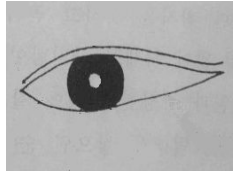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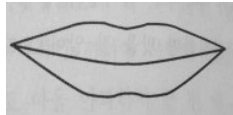
[표 1] 보편적인 ‘이상적 얼굴’의 황금비율(국제 표준형)

얼굴 부위	얼굴의 황금비율	
얼굴의 폭	얼굴의 가로 : 세로의 비율이 1 : 1.618이다. 눈의 가로 폭을 1이라 하면, 귀에서 눈 꼬리까지의 간격, 눈 꼬리에서 눈앞머리의 간격, 눈과 눈 사이의 간격이 동일하게 하여 전체 폭은 5이다.	
얼굴의 길이	전체적으로 3등분하여 이마의 머리카락이 난 언저리부터 눈썹까지의 간격, 눈썹에서 코 끝까지의 간격, 코끝에서 부터 턱까지의 간격이 같아야 한다.	
눈	이마의 머리카락이 난 부분부터 입 꼬리에 이르는 부위까지 이등분한 지점에 위치하며, 눈의 가로길이는 얼굴의 폭을 5라고 할 때 1에 해당되며, 눈의 세로길이는 가로길이의 1/3이다.	
눈썹	이마의 머리카락이 난 부분부터 턱끝까지의 길이를 3등분 하여 1/3 지점에 해당한다. 눈썹의 길이는 눈 꼬리와 콧 망울을 잇는 연장선상에 눈썹 꼬리가 오게 된다.	
코	콧 망울과 콧 망울의 폭은 코의 길이를 100으로 했을 때 64정도가 이상적이다.	
입술	입의 가로 길이는 두 눈동자의 안쪽을 지나는 수직선보다 크지 않으며 대략 눈의 가로 길이의 1.5배 정도이며, 입은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3:1이다.	
귀	코의 위치와 얼굴의 중부에 위치하여 동일한 높이를 유지한다.	

4. 얼굴 부위와 성격과의 관계

관상은 상을 보아 운명재수를 판단하여 미래에 닥쳐올 흉사를 예방하고 복을 부르려는 점법(占法)의 하나이다.

[표 2] 관상학적 황금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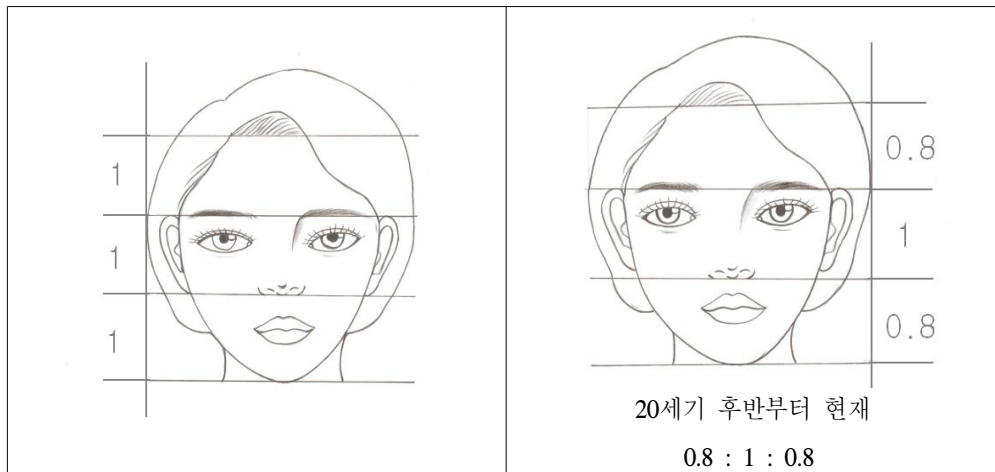
얼굴 부위	관상학적 황금 비율	
눈썹	눈썹은 개인의 현명하고 어리석음과 귀천(貴賤)을 알 수 있고 형제 사이의 정과 도움 여부를 알 수 있는 형제궁이다. 좋은 관상을 가진 눈썹은 윤기가 나고 술이 가지런하게 나있다. 반면에 나쁜 눈썹은 조잡하게 자라거나 거꾸로 자라거나 듬성듬성하게 자란 것, 또는 중간에 끊어진 눈썹이다.	
눈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한다. 그만큼 사람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다. 눈동자는 흑백이 분명하고 광채가 나야 좋은 상(相)이다. 눈의 흰자위가 많고 검은 동자가 적으면 성격이 급하고 제 마음대로이고 탐욕스럽고 흥이 많다.	
코	코는 재산의 상태와 금전운세 수명의 장단(長短)과 개성의 강함과 부드러움 재물이 많고 작음을 볼 수 있다. 정, 측면에서 볼 때 기울임이 없이 단정해야 하며 둥글고 풍만한 코가 길상이다.	
입	입의 형상은 언어의 음식의 화복이다. 자녀, 성욕, 시비(是非)를 알 수 있다.	
귀	귀는 개인의 건강, 총명, 사상, 지혜와 관련이 있다. 귓밥이 두툼하고, 큰 것을 말하고 귀 끝이 입으로 들어가듯이 한 형태를 한 것 또한 활처럼 휘어져 있는 귀가 좋다.	

제 2 절 성형미인 얼굴이미지 유형

1. 현대 성형학에서의 이상적인 미인의 얼굴

현재 성형학에서 말하는 미인의 황금비율은 얼굴이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사람은 얼굴길이를 3등분했을 때 이마의 윗부분에서 눈썹까지의 길이(상안)와 눈썹에서 코끝까지의 길이(중안), 코끝에서 턱 끝까지의 길이(하안)가 같다. 얼굴 폭을 보았을 때에는 눈과 눈 사이의 안쪽간격과 눈의 크기가 같아야 하고, 입술의 폭은 양쪽 눈동자 사이의 간격과 같아야 한다. 즉, 1:1:1의 비율을 보인다(장지연, 장두열, 2008:p.11).

그러나 미인의 전형적인 얼굴형은 20세기 후반으로 넘어오면서 급격히 변한다. 현대 한국미인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미스코리아 수상자들의 얼굴형은 전 시대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 우선 상안, 중안, 하안의 비율이 0.8:1:0.8로 바뀌었다. 현대 미인은 조선시대에 비해 이마는 다소 좁아진 대신 코와 턱은 상대적으로 길어졌다. 한국미인형의 가로세로 등분의 비율 변화이다. 이는 서구의 전통적인 미인상과도 다르다. 서구미인에 비해 코는 약간 길고 턱은 짧다. 이처럼 코가 길어지면 얼굴에 전체적으로 세련된 인상을 주고, 턱이 짧아지면 동안의 분위기를 풍긴다. 다음은 얼굴형의 가로, 세로 비율이다. 건축, 조각, 회화, 공예 등 조형예술의 분야에서 다양한 통일의 하나의 원리로서 널리 활용되는 황금비율은 미인형의 가로,세로 길이의 비율에 적용된다. 즉 정수리 A지점에서 B지점까지의 길이와 가로 C지점에서 D지점까지의 비율이 1.618 : 1의 비율이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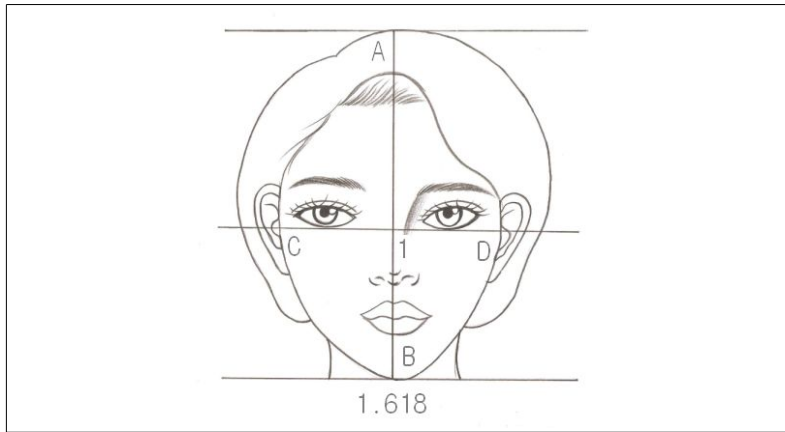


<그림 4> 미인의 가로세로 비율변화

2. 현대 성형외과적 얼굴 부위의 기준

성형외과적 이상적인 눈의 모양으로는 눈의 가로길이가 3cm, 상하폭은 1cm, 눈과 눈 사이의 간격은 3cm정도이며 인기있는 여배우들의 눈을 보면 거의 이러한 비율을 가지고 있다(양두병, 2000:p.51). 이상적인 코의 위치는 얼굴을 세로로 삼등분 했을 때 3분의1이 되어야 하고 코의 높이는 좌우 눈의 안쪽과 코의 바깥쪽이 수직선상에서 연결되어야하며 입술의 3분의 2를 넘지 않고 코끝이 약간 동그스름 하면서 콧날은 반듯하게 뻗어 있어야 한다.

이상적인 입술의 위치는 이마에서 턱 끝까지 삼등분 했을 때 인중에서 턱 끝까지의 3분의 1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이상적이고 인중에서 턱 끝까지의 길이에 절반이 되어야 한다. 옆에서 보았을 때 입이 코끝에서 턱 끝까지 직선으로 그었을 때 그 선에 입술 끝이 닿을 정도가 아름답다. 입술의 가로길이는 동공중앙 사이의 거리와 비슷해야 하고 두께는 윗입술이 7-9mm, 아랫입술이 9-11mm정도가 이상적이다<그림 5>.



<그림 5> 미인형의 가로세로 비율



HANSUNG
UNIVERSITY

제 3 장 미의 가치변화에 따른 수정메이크업의 인식 변화

제 1 절 메이크업의 정의와 필요성

메이크업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사전적 의미로는 신체의 아름다운 부분을 돋보이도록 하고, 결점이나 아름답지 못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행위라 정의되어 있으며, 어떠한 것을 만들어 낸다는 뜻이다. 본래 타고난 얼굴을 내적 정신과 외적 감각으로 창조하는 것이 얼굴 메이크업이다. 영어 단어의 ‘보완하다.’ ‘제작하다’의 뜻처럼 메이크업을 통하여 결점을 보완하고 좀 더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메이크업은 적용대상, 용도, 방법 등에 따라 세분화 할 수 있는데 화장에 해당하는 뷰티 메이크업과 분장에 해당하는 스페셜 메이크업으로 크게 분류되어지며,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메이크업은 뷰티 메이크업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의 얼굴은 특징, 형태, 크기 등 개성과 관련 있는 유전적인 요소가 상당부분은 차지하지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 환경과 유행, 건강, 일상적 습관으로 얼굴 인상은 변형되며 이미지와 직결된다고 하였다. 이는 언어 이상의 의미를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총체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단순히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 이외에도 직업과 신분, 나이, 의상 및 상황과 목적 등에 어울리도록 표현하는 것이며 이미지를 개선하여 보다 좋은 인상을 형성해주는 메이크업을 말한다.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와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얼굴이미지에 대한 특성을 파악, 약점을 커버하고 장점을 돋보이게 하면서 동시에 때와 장소, 상황에 맞게 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 2 절 메이크업의 변화과정

인간의 메이크업의 동기는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있는데, 고대로부터 시작하여 아름다워 보이거나 하는 미적본능의 장식적 수단으로 시작되었다는 장식설,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이성 유인설, 곤충이나 동물, 적으로부터 또는 기후로부터 피부의 보호나 건강을 위해 행해졌다는 보호설, 심리적인 불안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주술적, 종교적인 행위로 행해졌다는 종교설, 자신의 위엄과 절대적인 권위의 상징을 갖추기 위해 계급, 신분, 부족, 남녀 성별의 구분을 위하여 신분, 계급 등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설 등으로 분류되어진다. 그러나 이 중 어느 한가지로 개념을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시대적 배경과 사회 문화적 성향에 따라 메이크업에 대한 적용은 꾸준한 변화를 가져왔다.

20세기의 메이크업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1920년대 초에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으로 가늘고 휘어지게 그리는 눈썹, 눈이 크게 보이도록 눈둘레를 검게 화장, 장미봉우리와 같은 작은 입술 등의 어린애와 같은 모습을 표현하였으며, 1920년대 후반의 메이크업은 높고 가는 눈썹, 가장자리 밖으로 뻗은 아이라인, 광대뼈 강조, 윗입술 강조 등으로 성인답고 신비로운 여성을 표현하였다. 1960년대에는 지적가치를 표출하는 수단으로 여러 가지 표현 형태와 패턴이 나타났으며, 1970년대는 자연스러운 화장으로 눈과 광대뼈를 강조하였다. 1980년대 초반에는 성숙미를 보이는 메이크업이 유행하였으나, 후반에는 어느 특정 스타일이 아닌 다양함과 개성이 나타나는 메이크업이 유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영향은 199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으며, 자기표현이 좀 더 쉬운 메이크업을 선호하게 되었다(김희숙, 1996:pp.27~52).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메이크업은 상황 연출, 이미지변화, 사회생활의 기본 적인 예의 등 다양한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메이크업의 시작과 각 개인이 갖는 화장의 의미, 동기가 다양하게 변화하여 메이크업을 하는 것이 단지 예쁘다라는 측면에서 뿐 아니라 수용자의 화장 소비 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바 있어 메이크업이 현대 사회에서 차

지하는 의미가 점점 증대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아름다움을 표출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에서 시작된 메이크업은 현대 사회에서는 내면적인 아름다움 보다는 시각적인 외모의 아름다움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메이크업이라는 외모의 수정 과정을 통해 여성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기대 효과, 화장 이미지를 통한 외모 변화를 통하여 메이크업에 대한 의미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제 3 절 메이크업의 사회적 효과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사회규범처럼 되었으며,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외모에 대한 관심이 증가 되어져 다양한 외모관리행동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정명선, 2003:pp.161~179). 오늘날 메이크업의 의미와 목적 등은 시대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화장 행위를 단순한 하나의 행위 자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도화된 사회 속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 형성을 통해 또 다른 재해석의 과정을 거치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즉, 인간 관계 속에서의 자기 이미지 형성과 평가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 속에서 자기의 이미지를 연출하고, 이를 통해 대인 관계 및 사회 활동을 이루어가는 타인과의 관계를 위한 목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외모가 사회 생활 속 경쟁력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면서 이미지 변화를 위한 외모는 관리를 자신에 대한 가치를 올리고 진가를 표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현대인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신체적 매력은 친밀감과 만족감을 주는데 매력적인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남성들로부터 더 많은 인기가 있다고 하였고, 매력적인 여성들은 다른 사람들로 부터 성적인 구애, 칭찬, 긍정적인 말들을 더 많이 듣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람의 외모는 내적 이미지를 외부로 표현하는 표상으로 외모 이미지를 통하여 사람에 대한 평가 및 그 사람의 직업과 성격, 생활환경 등을 추측할 수 있게 된다.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직업의 전문화가 가속화 되고 여성들의 대인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지면서 직장 여성들이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고 관리 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외모를 가꾸는 방법 중에 얼굴을 가꾸는 메이크업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이미지 개선효과가 뛰어나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기본이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는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어 직장 여성에게 메이크업은 필수이며 기본적인 에티켓으로 인식되고 있다. 메이크업을 통한 외모 이미지 변화는 자신의 신분과 직업과 직위에 맞게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대인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자기 효능감이 높고 낮음에 따라 메이크업의 정도에 차이가 있으며, 메이크업에 대하여 여성의 사회학적 기능의 측면에서 본인의 외모를 좀 더 단정하고 보기 좋은 인상을 연출하여 타인에게 좋은 느낌과 이미지로 받아들여지듯이 사회적 적응을 더 유용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배주운 2003:p.52).

여성들은 상황에 따라 변화된 새로운 모습으로 연출해야 할 때도 있게 마련인데 메이크업은 이러한 변화를 위해 얼굴을 중심으로 한 자기표현의 한 방법이다.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메이크업은 매력적이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속한다고 하여 메이크업을 통한 사회적 이미지 변화는 사회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4 절 미의 가치변화에 따른 여성 얼굴 디자인의 인식 변화

1. 모계중심사회의 얼굴 디자인

신체를 치장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 하는 욕구와 그것에 변화를 주기 위한 시도로 인해 모계사회에서의 얼굴 디자인은 다양한 신체장식 등으로 미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모계 사회 뿐 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신체장식을 통해 그 시대의 사회를 반영하고, 인간의 발전 정도, 사회의 가치관을 이해 할 수 있게 하며, 특히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 분

명하지 않았던 원시 사회에서는 다른 민족을 이해하는데 신체장식은 가장 좋은 수단이었다. 인간은 우리가 원시라고 부르는 시기보다 훨씬 이전부터 혼례, 위엄, 보호, 기원, 상징 등이 목적으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장식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원시 시대에는 비정상적으로 비만한 여자가 미인이었다. <그림 6>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고 이름 붙은 유명한 이 조각품은 약 12cm의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여체를 사실적으로 생생하게 나타냈다. 비너스란 미인의 대명사이고, '빌렌도르프'는 발굴된 지명이다. 이런 모습이 어째서 사실적 이냐고 의문을 갖겠지만, 이 조각품은 거대 유방증인 비만 여성의 신체 모습을 3차원으로 측정하여 조각을 한 듯, 아주 정확히 재현해 놓았다, 흔히, 얼굴의 세부 묘사가 생략되었기 때문에 여성의 생산과 양육성을 '관념적으로 강조하여 표현한' 조각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 조각품은 결코 관념적이지 않고 시각적으로 본 바를 그대로 재현한 조각품이다. 거대 유방증을 가진 여자의 체격, 비만증의 전신 증상이 극명하게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다. 이 조각품은 관념적으로 조각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조각가가 직접 본 것을 시각적으로 충실하게 재현한 것이다. 이 조각품을 전후좌우로 살펴보면, 사실적이기 때문에 비만이어도 자연스럽고 활력이 넘친다.

이 조각가는 분명히 이렇게 생긴 체격의 여자를 직접 본 적이 있고 그 모습을 시각적으로 기억해 나타낸 것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구석기 시대에 이런 비정상적으로 비만한 여체를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사실적으로 정교하게 조각했나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런 의문은 로마 시대의 풍요와 다산의 여신 케레스가 다유방증이었던 사실을 생각하면 해소된다. 로마의 풍작의 여신 케레스는 가슴에 유방이 가로로 3개 또는 6개나 달린 여성으로 묘사된다. 실제로 이렇게 가슴에 유방이 많은 사람이 있다. 이런 경우를 의학적으로 다유방증이라고 하는데, 학술적으로는 전신에 32개나 있는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다<그림 7>.

비만한 체형을 좋게 본 나머지 거대 유방증을 신성시하여 이를 조각하고 신물로 대했다(양지니, 2011:pp.19-21).



<그림 6>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출처: [http://blog.naver.com/yaoielf?](http://blog.naver.com/yaoielf?Redirect=Log&logNo=110099002799)

Redirect=Log&logNo=110099002799



<그림 7>다산의 여신케레스

출처: [http://blog.naver.com/deessehera?](http://blog.naver.com/deessehera?Redirect=Log&logNo=60068105894)

Redirect=Log&logNo=60068105894

2. 종교중심사회의 얼굴 디자인

종교시대의 미의 기준은 신이었다. 특히 기독교사회의 여성의 미적가치의 기준은 성모마리아의 모습이었으며, 신이 주신 소중한 몸을 치장하는 것은 신에 대한 모욕과 도전이었다. 또한 종교시대에는 모든 여성의 아름다움은 퇴폐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기독교세계에서의 여성의 아름다움은 순결과 정숙이었다. 본래 신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이 인간의 모습이지만, 계율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원죄를 지은 인간, 그중에도 여체는 신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로 생각되었다. 육체적인 것, 육체를 아름답게 보려는 모든 감성적인 것은 배격의 대상이다.

중세 기독교 세계에서는 순결과 정숙이 여성에게 요구하는 최고의 덕목이었으며 여성이 신체나 얼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치장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었다. 조물주가 자신의 모습을 본떠 인간을 창조하였으므로 인간의 육체는 인간의 의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신의 섭리에 속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신체에 변화를 주는 메이크업과 같은

행위는 음란한 것일 뿐 아니라 교만의 죄를 짓는 일이었다(이숙연, 2005:p.43).

중세 유럽, 특히 교황권의 온상이라 할 수 있는 이탈리아에서 교회가 발휘한 영향력은 세세한 일상생활과 관습까지도 좌우할 정도로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회화와 메이크업도 그 종교적 특성과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중세 회화는 교회의 보편적 권위에 얽매이는 정도가 아니라 조각과 더불어 보편적 권위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 곧 종교적 상징성을 드러내는 기능을 담당했다.

이러한 종교시대의 아름다움에 대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이유로 인해 일어난 십자군 전쟁으로 서유럽에 화장품을 소개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1095년 첫 번째 십자군 전쟁 이후, 예루살렘은 무신론자와 십자군의 용사들이 가져온 아라비아산 향수와 화장품으로 넘쳤다. 기사들은 그들이 마주친 사람들을 야만인이나 더러운 사람들로 묘사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동경으로 가득한 동쪽나라 관습의 부분에 대한 보고서를 가지고 돌아왔다. 유럽에서 머리 염색은 갑작스런 유행이 되었고, 귀족의 여인들은 마녀를 나타내는 붉은 색을 제외한 노란색 검은색 등으로 그들의 머리를 물들였다. 특히 노란색은 빛을 상징했고, 빛은 신을 상징했다

유럽의 여성들은 몸의 털을 속돌로 문질러 없앨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기사들이 그들에게 가져다 준 칫솔로 이를 닦았다. 발진을 진정시키기 위해 유럽여성에 의해 사용되는 허브 로션은 이제 얼굴크림으로 동양의 재료를 가하였다. 비록 교회는 화장품의 사용을 비난했지만, 부유한 여성들은 항상 미를 위해 여가시간을 충분히 즐겼고, 중세시대에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인과 직공의 새로운 계급들은 그들을 아내들에게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여권을 마련해 주었으며 상업의 발전은 모든 계층이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게 하였다. 여성의 외모는 로맨틱한 기사도의 상징을 유지하고 날씬하고 창백한 금발머리의 귀여움으로 기준화 되었다. 선호되던 얼굴색은 백합처럼 흰색이었고 입술이나 볼은 장미처럼 붉은 색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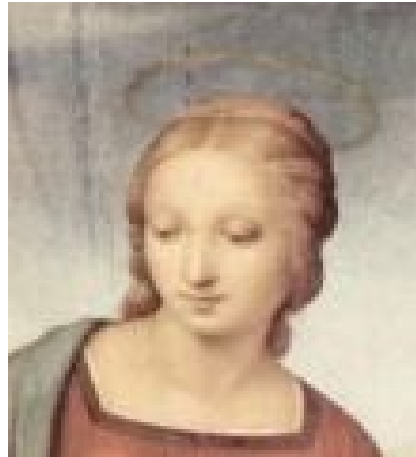
종교시대의 여성들은 창백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하여 사나운 기미를 멀리하기 위한 화장품을 사용하고, 매력 있는 창백함을 얻기 위해 밀가루 파

우더로 그들의 피부를 칠하였고 밖으로 나갈 때는 베일로 그들의 얼굴을 덮었다. 몇몇 부유한 여성들은 계속 피를 흘려 안색을 창백하게 만들었다.

창백한 안색은 반대되는 밝은 색으로 입술이나 볼을 칠하면 더 창백해 보였다. 14세기 스페인 소각상중에서는 위로 올린 눈썹, 검은색 아이라인을 하고 입술과 볼을 붉은 색으로 칠한 성모 마리아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8><그림 9>(양지니, 2011:pp.27~31).



<그림 8> 종교중심사회의 얼굴 스타일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76208&imageNo=4>



<그림 9> 종교중심사회의 얼굴 스타일
출처: 네이버 미술검색

3. 부계중심사회

부계중심사회에서 보여 지는 특징은 가부장적, 남성우월주의 사회생활로 인하여 아름다움의 기준이 남성의 이상향으로서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18세기 프랑스의 시각예술은 왕실의 자부심에 만족을 주는 미개물로서 번영하게 되는데 루이 15세의 통치기간동안 새로운 스타일의 예술이 그의 전임자의 걸치레에 대한 반발로서 일어나게 되는 게 이것을 로코코(rococo)라고 불리며, 프랑스어 로카이유(racaille)에서 유래한, 암석 작업이라는 뜻이다. 새로운 가구 세간들을 살 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 유쾌한 스타일로 그들의 집을 고쳐 장식했다. 사회 지도자들의 집은 소용돌이무늬와 곡선, 옅은 실크 휘장, 심각한 주제를 피하는 그림들로 장식되어졌다. 캔버스의 작품에서 표현된 여성들은 아름다움의 개념에서 로코코의 영향을 보여준다. 특히 르네상스시대에 보여 지는 인물화는 남성들이 본능적으로 원하는 여성상을 볼 수 있다.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작품과 앵거스의 작품 속 모델은 부계사회의 미적가치의 기준을 잘 보여주는 한 예이다.

르네상스시대에는 종교적 억압으로 인하여 여성의 치장이 법으로 금지시되었고 예술가들 또한 여성을 모델로 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받아왔었다. 하지만 원거리 교역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동방의 연금술 약학, 식물학 등의 지식 뿐 아니라 목욕, 식이요법, 마사지, 운동 등의 기법과 향료와 화장품의 사용 및 제조법이 유럽사회에 전해지고 왕족이나 고위층 인사가 아니면 만져보지 못했던 향료와 메이크업 재료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교회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여성들의 본능적인 욕구가 꿈틀대기 시작했다. 물론 경제 성장과 도시 발전은 건축과 장식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어 생계형 공인이라는 직업적 신물을 가진 자들이 작품 제작에서 자부심을 느끼는 예술가들로 변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성들과 작품을 통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술가들이 이제 오랜 기간 억눌렸던 현실 세계의 미를 원래의 자기 자리로 되돌리게 된다.

이러한 외적 변인들 못지않게 가치관의 변화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중

세말엽에 신이란 절대적인 존재에 비하면 인간이 보잘 것 없는 존재이지만 지상에 존재하는 피조물 가운데서는 가장 중요한 신의 창조물이라는 인간중심의 사고가 형성되기 시작해 현실 세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르네상스 시대 가치관으로 발전하였다. 강한 자아의식과 개성의 자각으로 인하여 르네상스 인들은 내세보다 현세의 삶을 찬양하게 되었고 인간 자체를 고유의 가치와 원리를 가진 존재로 인식하게 된 것이었다(전성정, 2001:p.47).

가치관의 전환으로 사람들은 건강한 육체를 아름답게 여기기 시작했고 아름다운 육체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 꾸미기 시작했으며 아름다운 육체를 찬양하게 되었다. 인간 존엄성의 회복과 인체에 대한 정당한 평가에 힘입어 세속적인 일에 더 관심을 두에 따라 기독교가 금지한 행위들 중 하나인 메이크업도 다시금 유행하기 시작했고, 머지않아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상태로 외출하는 여인을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사교를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었다(장상숙, 김훈 등, 2001:p.51).

역사 속 여성들의 미적가치의 기준중 하나는 명료성이다. 중세의 전성기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미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비례성, 완전성, 그리고 명료성이 필수임을 상기시켰다. 명료성은 선명함 또는 광휘로 정의되기도 하는데 눈부시게 빛나는 사물들은 아름답다고 그는 말한다.

여성들은 눈부시게 빛나는 피부를 만들기 위하여 피부를 하얗게 표현하였다. 흰 피부를 표현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한 재료는 납으로 만든 연백(鉛白)이었다. 베네치아에서는 옷 길을 넓게 튼 옷을 입을 때 드러나는 가슴에도 분을 발랐으며 온몸에 분을 바르기도 했다. 심지어 얼굴과 노출된 피부에 회화용 안료를 발라 섬세하고도 창백한 모습을 연출하는 여인들도 있었다. 피부에 바른 흰 분은 얇게 발라도 부자연스러웠으나 여성들에게 상당한 만족감을 주었다. 하얀 손을 원하는 여인들은 쓴 편두, 겨자, 벌꿀 같은 혼합물을 바르고 장갑을 끼고 잔 후, 아침에 빗물이나 안식향 나무 기름으로 손을 씻었다. 붉은 산호, 연분홍색의 나무진, 착색제 및 약제로 사용되는 기린혈, 포도주를 발효시킬 때 밑으로 가라앉는 물질인 백포도주의 주석, 갑오징어의 뼈, 복숭아씨, 계피 등의 가루 혼합물로 닦는 치아와

분을 바른 광택 없는 흰 얼굴은 귀족적 자태를 드러내는 순수함과 섬세함을 상징했다. 물론 장미 빛으로 보이도록 볼을 붉게 칠하는데 쓰이는 연지가 상류계층 여성의 저녁화장용 필수품이었다. 이러한 기본적인 화장품 이외에도 취향에 따라 연백에 다양한 혼합물을 첨가하여 색조화장품을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주로 사용한 색채는 빨강, 파랑, 짙은 주황, 진보라, 갈색, 검정이었다. 당시 이탈리아 여성들이 추구한 아름다움이나 메이크업에 대해 묘사한 문학 작품들이 적지 않으므로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그 시대에 유행했던 화장술을 재구성해 볼 수 있다. 보카치오는 ‘아주 작은 상아처럼 흰 치아, 천상의 것인 듯 한 가슴, 매우 섬세한 눈썹’을 칭송하였고 마키아벨리는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이어지는 넓고 투명한 정맥이 보이는 긴 손, 통통한 다리, 작은 발, 황금빛 머리카락’을 찬미하였다. 이상형의 여성은 라파엘로(Sanzio Raffaello)나 티치아노(Verellio Tiziano)같은 이탈리아 화가들의 모델이 되었고, 화가들의 이상형과 거리가 먼 여성들은 두꺼운 메이크업으로 부족한 부분을 감춰 남의 눈을 속이려 했다(지현, 1998:pp.38~49).

부계중심시대의 컬의 구조는 절정에 달했다. 헤어의 구조와 디자인은 그 시대의 건축양식의 스타일이 반영되어 나타났으며 다양한 헤어 장식을 통해 헤어 패션을 보여주었다. 부계시대의 전형적인 인물인 루이 15세의 정부 풍파두르 부인은 자신의 머리를 100가지의 방식으로 정돈하였는데, 머리에 파우더를 바르고, 머리 그 자체로 광택이 나고, 뒤로 곧게 빗어 넘기고 귀를 보이고 목에 컬이 있는 헤어스타일로 그 시대의 왕족이나 귀족부인들은 그녀를 따라하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머리형으로부터 우아함을 표현하기 위해 머리를 높이 쌓아 올리고 여러 재료로 그것을 채우고 탄력성을 주며 그 측면에 커다란 컬을 정렬하고 정수리에 우아한 깃털과 꽃으로 장식을 하고, 우아함을 표현하는 등 우아함의 이면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학적인 문제들이 있었다. 그로 인해 가발과 헤어 쿠션, 헤어장식 등으로 미적가치관을 정립하였다<그림 10><그림 11><그림 12>.



<그림10> 부계중심사회 얼굴스타일

출처: [http://blog.naver.com/hjyi0724?](http://blog.naver.com/hjyi0724?Redirect=Log&logNo=20114121846)

[Redirect=Log&logNo=20114121846](http://blog.naver.com/hjyi0724?Redirect=Log&logNo=20114121846)



<그림11> 부계중심사회 얼굴스타일

출처: [http://blog.naver.com/20something?](http://blog.naver.com/20something?Redirect=Log&logNo=70029520565)

[Redirect=Log&logNo=70029520565](http://blog.naver.com/20something?Redirect=Log&logNo=70029520565)



<그림 12 > 부계중심사회 얼굴 디자인

출처: <http://blog.naver.com/inma20?Redirect=Log&logNo=150097504807>

4. 왕족중심사회의 얼굴 디자인

왕족중심사회에 나타나는 얼굴이미지는 절대적 아름다움으로써 영국 군주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게 나타난다. 영국은 그녀가 통치하는 동안 번영하였고 여성이라는 약한 이미지를 엘리자베스 1세는 백성들에게 자신을 신격화함으로서 숭고미를 내포하여 백성들을 압도하는 절대적 미의 기준을 정립했으며, 예술가와 작가들의 도움이 컸다.

많은 예술가들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초상화를 보면 공통된 미적기준들이 나타나고 있다. 새하얀 피부와 화려한 보석 풍성한 머리카락의 표현 등은 현대 까지도 보편적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상징인데 그것들이 의미하는 한 가지 특징은 ‘젊음’이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평생을 25살의 젊은 엘리자베스가 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백성들은 남녀노소 할것 없이 존경하는 여왕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찬양하고 닮아가기 위해 노력한다<그림 13>.

과거시대에서 보이는 공통된 미적기준은 새하얀 피부이다. 고대 여인들도 새하얀 피부를 갖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는데 호메로스는 그중에서도 특히 얼굴과 팔, 팔꿈치 등이 “상아보다 더 하얗다.”고 기록했다. 햇빛 한번 보지 않은 듯 한 새하얀 피부는 부를 상징했고 젊음을 상징하는 확실한 증거로 인식되었다. 특히 엘리자베스 1세는 남처럼 창백한 얼굴빛을 고집한 군주였으며 여왕의 얼굴은 어디에 가든지 다른 사람들과 확연히 구분될 정도로 새하얗다. 그런데 너무도 하얀 얼굴 때문에 치아가 누렇게 보이고 눈은 실제보다 더 작아 보였으며 전체적으로 차가운 인상을 풍겼고, 심지어 가면을 쓰고 있는 듯 한 착각을 일으키기도 했다.

우유처럼 하얀 피부는 고귀한 신분의 상징으로 통했다. 창백한 낮빛은 집안에 머물면서 들에 나가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농부들의 피부는 그을린 갈색이었고 얼굴은 제 나이보다 늙어 보였다. 아름다운 부인들은 창백한 낮빛을 보물처럼 소중히 여겨 외출 시에는 마스크와 모자, 베일로 얼굴을 보호했다. 그리고 여왕이 그토록 하얗게 분칠을 했던 또 다른 이유는 얼굴에 있는 마마자국과 좋지 않은 피부를 가리

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여왕의 속사정도 모르는 당시 영국 여인들은 무작정 여왕의 화장법을 따라 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남성들 까지도 새하얗게 분칠을 하고 다닐 정도로 여왕의 화장법은 유행했다.

영화에서 나타나는 엘리자베스 1세의 모습이나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Pierp della Francesca) 등 당대 화가들이 그린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를 보면, 15~16세기 여성들 사이에서 눈썹과 헤어라인을 밀어 이마를 넓게 드러내는 것이 유행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엘리자베스는 키가 크고 원래 창백한 안색과 풍부하고 물결치는 붉은 빛 나는 금발머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단단하게 켜진 머리 형태를 좋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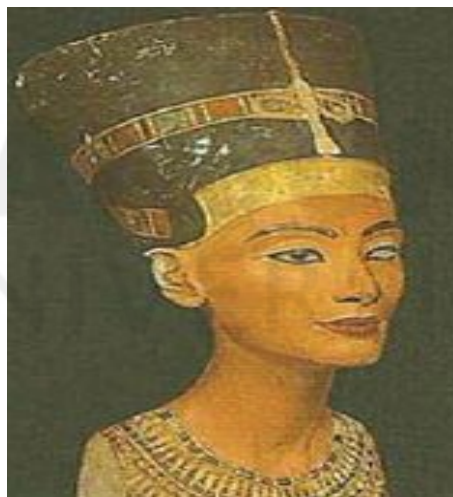
영국 여성들은 자신들에게 어울리던 그렇지 않던 여왕의 색과 스타일을 모방했다. 1593년에는 수녀들조차도 파리의 거리에서 곱실거리거나 파우더를 뿌려 장식한 머리를 하고 다녔다고 전해진다. 영국 궁정의부인들 역시 머리에 파우더를 뿌리거나 엘리자베스여왕의 자연머리 색과 어울리도록 노란색으로 염색하였다. 검은 머리는 유행하지 않았다. 염색과 탈색은 일반적으로 유행에 앞선 여성들 사이에서 행해졌고, 탈색은 특히 금발을 좋아하는 이탈리아인들 사이에서 즐겨 행해졌다<그림 15>(김광숙2010:pp. 41~49).



<그림 13> 엘리자베스 여왕
출처: <http://blog.naver.com/inma20?Redirect=Log&logNo=150097796757>



<그림 14> 마리 드 메디시스 여왕
출처: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338275&imageNo=0&categoryId=200000877>



<그림 15> 왕족중심사회의 얼굴 디자인

출처: <http://blog.naver.com/iskyi90?Redirect=Log&logNo=120023541921>

5. 여성들의 지위변화에 따른 얼굴이미지

사회적 개혁과 전쟁은 여성의 지위에 변화를 가져왔다. 그들은 영국에서 선거권을 얻었고, 자전거를 타고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 할 수 있었으며 대서양 외 양쪽 편 어느 곳에서나 테니스 치는 여인들을 볼 수 있었다. 남성들이 군대로 다 끌려갔기 때문에 여성들은 일의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다.

집밖에서 새로 찾은 위치는 여성 매력의 기준을 바꾸게 한 여성들의 옷의 선택과 예절에 큰 영향을 끼쳤다. 고급 패션은 이러한 새로운 양식에 해방된 여성의 수요에 맞추어갔다. 단순하고 세련된 Paul Poiret(1879~1944)의 스타일은 얽매임 없는 여성의 체형의 매력을 증가시켰다. 자연스러운 것이 가치 있는 것이 되었다.

1918년쯤, 전쟁 시 남성의 일을 대신하게 된 여성들은 남성의 전유물이라고 생각되었던 짧은 머리를 하기 시작하였고, 역설적으로 여성의 해방은 여성에게 화장품 사용을 더 하도록 만들었다. 여성들은 공공장소에서도 머뭇거리지 않고 화장을 했으며 담배를 피웠다.

모든 사람이 전쟁의 참혹함을 지우면서 경제적 붐이 일어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생필품의 부족현상도 곧 잊혀졌다. 1920년대에 기술은 레저의 활성화를 위한 옷과 기계를 공급하기에 충분히 발전되었다. 광고는 안락한 삶을 칭송하고 이상적인 여인의 개념은 시대와 함께 바뀌어갔다.

말괄량이 전후의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냈다. 이러한 이름은 신발을 신고 채우지 않아서 걸을 때 펄럭 거렸던 고무로 만든 긴 덧신 타입의 신발 때문에 붙여졌는데, 이런 여성들은 짧은 단발머리, 평평한 가슴, 어린아이 같은 얼굴의 여성들은 품위 있는 김슨걸(Gibson Girl)과는 대조되었다. 말괄량이 들은 아름다운 엉덩이도, 허리선도 원하지 않았고, 날카로움을 숨기는데 관심도 없었을 뿐 아니라 charleston을 밤새도록 춤추었기 때문에 생긴 알통 있는 다리도 숨기려 하지 않았다. 흥분하기 쉽고 출썩대면서 소년 같은 말괄량이 들은 자신의 삶을 재미있게 보내려 헌신했다. 이러한 “신여성”은 제도를 위협하였다. 여성들은 담배를 피우며 정형화된 기존 세대에 도전했다. 더욱 나쁜 것은 피임약을 사용하는 데에 대한 창피함도

없었다는 것이다. 여성들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결혼에 구속되기보다는 대학교에 다니는 것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뷰티 산업의 발전은 여성의 신분변화에 발 맞추어 변화해 왔다. 여성의 사회 진출은 활동성 있는 새로운 신 여성상을 만들어 내고, 신여성상은 과거의 풍만한 여성성과는 달리 가슴도 작고 살이 없어 활동성이 강해 보이는 새로운 여성상을 나타나게 했다(양지니, 2011:pp.38~45).

제 5 절 동·서양 여성의 미인관의 변화

아름다움, '미(美)'란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므로 미인을 평가하는 기준 역시 미인을 평가하는 사람의 연령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도 달리 평가된다. 시대의 변화나 유행에 따라 그 기준이 변하며 아름다움의 기준은 모호하고 지극히 주관적이며 변화하는 특성을 지녔다.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의 미의 기준이 다르며 또 문화권별로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표 3].

종족보존이 우선시되던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미인의 기준은 시대의 변화나 유행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 왔다 [표 4].

경제적으로 윤택해지고 문화의 혜택이 풍부해질수록 풍만한 육체는 더 이상 부유함의 상징이 아니며 날씬한 체형에 대한 선호는 일종의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아 마르고 긴 서구적인 체형이 미인의 조건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미인의 기준은 전체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특히 미인이라고 여겨지는 얼굴 자체도 현재와 굉장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로는 동·서양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서구적인 외모가 미의 기준이 되면서, 사람들의 현재 외모가 많이 서양화되었을 뿐더러, 그러한 모습이 선호되기 때문일 것이다.

[표 3] 동양 미인관의 변천과정

시대	동양	
고구려 (B.C.37~A.D.668)	고구려 수산리 고분벽화의 귀부인도에서 보듯이 가늘면서 둥근 눈썹에 길고 가늘면서도 서글서글한 눈. 둥글고 완만한 얼굴형으로 통통해 보이며 백옥 같은 피부를 미인의 기준	
조선시대 (1392~1910)	흉터나 잡티가 없는 백옥 같은 피부 둥그랗고 부드러운 얼굴. 넓고 반듯한 이마를 아름다운 미인상으로 표현. 다산이 여성의 조건 이었던 시대에 맞춰 하체가 튼실해 보이도록 길고 폭넓은 치마 속에 속옷을 겹겹이 겹쳐 입는 것이 미인의 조건. 옥같이 희고 투명한 피부를 위해 미안수를 만들어 사용하며 꿀을 이용한 미안 팩을 사용	
1960년~ 1970년대	후덕하고 복스러운 인상. 얼굴은 전체적으로 둥글고 이목구비가 작은, 눈 코 입은 북방계적 인자를 강하게 띄고 있음. 현대의 미인의 기준에 비해 덜 입체적이며 광대뼈, 턱뼈 등 돌출된 부분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얼굴에 살이 붙어있음	
1990년대 ~ 현대	큰 키와 작은 얼굴 등을 선호하면서 미인의 기준이 서구화되기 시작. 한국의 전통적인 미인형과 점차 차이를 보이게 되었으며 현대에 들어 문화가 서구화 되면서 서구적 얼굴이 미인의 기준이 됨	

[표 4] 서양 미인관의 변천과정

시대	서양	
이집트 (B.C.3000~B.C.30)	가장 오랜 문명의 역사를 가진 나라로 향유와 기름을 이용한 피부보호를 하였으며 화려한 장식과 예술적인 문화로 발전하여 미용역사의 기초	
그리스 시대 (B.C.1100~B.C.146)	건강한 인체미를 중시했던 그리스에서는 인공적인 아름다움을 혐오하고 자연 그대로의 꾸밈없는 인간 그대로의 모습을 중시. 신체의 수학적 비례요소에 따라 균형미와 조화미를 가장 중요. 인체의 황금률이 등장한 시대	
로마시대 (B.C.753~A.D.476)	물질적인 풍요와 생활의 여유를 화장으로 표현하였으며, 흰 피부를 아름답게 여겨 피부화장에 백납을 사용 하여 권위를 상징	
중세시대 (476~1453)	순결과 정숙이 강요된 시기로 성녀를 연상시키는 흰 피부와 넓은 이마를 선호하였으며 최고로 아름다운 미인의 기준	
르네상스시대 (14C~16C)	성숙미를 풍기는 여성이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음. 원뿔모양으로 솟은 가슴이나 통통한 턱, 풍만한 허벅지를 가진 성숙한 여성이 미인의 기준	
19세기 말	야윈 몸매, 흘쭉한 볼을 가진 여성들이 미인의 기준	
20세기 현대	2차 대전 이후 다산을 위한 생물학적 욕구로 인해 큰 가슴과 굴곡 있는 풍만한 몸매를 가진 여성이 미인의 기준. '섹시(sexy)'라는 단어가 여성의 미를 표현하는 형용사로 사용 쌍꺼풀진 커다란 눈과 오뎅코, 그리고 마른 몸매에 가슴과 엉덩이는 도드라진 일명 바비인형 같은 여성이 미인의 기준	

제 6 절 성형 선호시대의 여성 얼굴 디자인의 변화

‘스마트워크 컨퍼런스’는 미래 지향 산업을 위한 어찌면 필수적인 생활 방식의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의미 깊은 행사라 할 수 있다. 추창근 한국경제신문 논설 실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펼쳐진 이날 행사에서 이각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스마트 워크는 저출산, 녹색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며 사회와 개인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석호익 KT부회장은 “스마트 워킹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고령화, 저출산,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 등 국가 사회적 문제 해결의 주요 수단이다.”라고 강조했다.

2015년 공무원 30% 원격 사무실 등서 근무할 예정이며, 스마트 폰과 같은 네트워크 인프라의 확장으로 트위터와 SNS(Social network service)등의 발달은 정치적 영향력도 커지게 될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2010글로벌 인재 포럼에서도 스마트 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이것이 ‘반짝 이벤트’적 트렌드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시켜주고 있다.

스마트 워크시대의 도래는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는 전문직 여성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것이다. 자택 근무로 인하여 기존의 ‘오피스 걸’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메이크업과 헤어 패션에 많은 변화가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 워크시대는 시뮬라크르적 미적가치관이 나타나고 있다. 모범도 원본도 없는 복제물 속의 삶이다.

시뮬라크르에서 보여 지는 복제성, 가상성, 다양성, 기호성 등의 특징들은 스마트 워크시대 여성의 미적가치변화에 나타난다. 장인적 생산을 통한 것들은 점차 사라지고 대량 생산을 통한 규격화되어 복제되고 복제된 사물들이 늘어난다. 여성의 미적가치 또한 모범 답안의 여성상을 어떤 여성이 복제하고, 다시 그 복제된 여성을 또 다른 여성이 복제함으로써 미적가치는 규격화되고 대량 생산 되는 것이다.

여성의 사회적 위치와 경제력 상승으로 인하여 여성 본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 충족이 바로바로 되는 이 시점에서 복제성으로 인한 미의 보편성과 완전성은 하나의 트렌드화 되어 현대여성의 미의 기준으로 나타나고,

복제 되면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완전성을 가지게 된다. 여성들은 자신이 바라던 이데아, 즉 미적 기준치에 다다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다.

20세기 중반 이후 교통 통신, 매스미디어의 발달은 국가와 민족 문화 간 시·공간의 경계를 붕괴시키고 이에 따라 수많은 인종과 민족의 혼성을 통해 다중 정체성과 다문화주의 현상을 야기하였으며, 1980년대 이후 지속되어온 포스트모더니즘과 탈식민주의의 영향으로 근대성에만 치우치지 않는 복수주의와 복수문화주의가 각 국가 내부에서 뿐 아니라 국제적인 관계의 차원에서도 등장하게 되었다(조용진, 2007:pp.35~38). 21세기 스마트 워크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시뮬라크르의 미적특성은 미디어의 시간적 연속성을 통해 다양하고 유동적인 미적가치들을 표현해내어 세계는 하나가 되었으며, 서구가 강요한 백인 중심의 절대미에서 벗어나 미의 상대성은 역사 속에서 소외된 인종들의 미적가치를 새롭게 대두시켜 현대 뷰티분야에도 반영하고 있다.

뷰티 산업의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그 범위가 여성을 넘어선 남성의 영역까지 침범했다. 여성의 영역에서도 무조건적인 섹시함이 아니라 남성의 상징인 강한이미지 남성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켜 외모이미지로부터 상대를 제압하는 기술을 연마함으로써 사회 속 에서 남성들과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게 되었으며, 여성들은 남성이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을 적극 활용하여 자신의 성공의 발판을 삼았다.

1. 보편적 이미지

인간의 미에 대한 관심, 타인에게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은 본능적이다. 현대는 남녀를 불문하고 외모에 신경을 쓰고 써야만 하는 시대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각 인종과 문화권마다 수천 년 동안 제 각각 형성돼 온 나름의 미의 기준, 현대는 그 기준에서 조차 서구적인 것이 보편적으로 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어쨌든 사회현상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는 미의 기준에는 보편성이 있다.

이는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공감하므로 그만큼 투자 가치가 있다는 사

실을 의미한다. 미인의 보편성에 접근하려고 매일 1시간씩을 메이크업에 투자하기도 한다. 평생 여기에 투자하는 시간, 비용과 관심을 합산하면 아주 큰돈일 것이다. 연간 미용 산업 분야에 도는 돈이 35조 원을 상회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다. 어떤 이들은 1~2주간의 고통을 견디면서라도 성형수술을 해서 미적 보편성에 따라 가려고 한다. 그만큼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외모에 대한 관심과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 그런데 한국은 외모지상주의가 만연하다고 할 만큼 그 정도가 유별나다. 한국은 지금 세계적인 성형수술 선진국으로 통한다. 90년대 후반부터 성형수술이 보편화되면서 우리나라 성형수술시장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제 성형수술은 외모와 이미지가 중요시되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선택의 문제가 돼버렸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형수술은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환자는 물론, 의사들까지 한국 성형수술의 앞선 기술의 혜택을 받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일본 여성들을 겨냥해 부산에서는 가벼운 관광 코스와 성형 수술을 패키지로 하는 관광 상품이 등장하는가 하면, 5월에는 성형수술 박람회가 열려 가장 자연스럽게 수술이 된 여성을 가려 진선미를 뽑는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한 걸 같이 쌍꺼풀진 큰 눈에 오뎅한 코, 도톰한 입술에 가름한 턱, 그리고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가지런한 치아까지 여지없이 확실적인 얼굴들이다. 또 방학이면 유명한 성형외과는 예약이 줄을 이어 성수기를 맞는다. ‘얼짱’, ‘몸짱’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서 이를 부추긴다.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시장에서 과거에 불가능 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능해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종류의 성형수술이 생겨나고 있다. 티 안나는 성형수술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이제는 자연미인과 성형미인의 구별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으며, 그 경계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다.

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여성들은 아름다움에 대하여 재정의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포괄적이지만 객관적이었던 동양적인 미는 서구미인들을 보게 됨으로써 상대적인 잣대를 대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하여 미적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특히 사진의 발명과 19세기말 고안된 사진인쇄의 출현은 복제 기술을 새로운 수준으로 향상시켰으며, 시플라크르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성형으로 인한 미의 복제가 가능해지면서 여성들은 누구나 미인이 될 수 있는 미인의 보편화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일본 네티즌들의 글을 번역해 올리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한국 여자 연예인들은 얼굴이 비슷비슷해서 누가 누군지 구분하기 힘들다”는 글이 종종 올라온다. 그도 그럴 것이 텔런트 김태희가 뜨면 그와 비슷한 얼굴의 여자 연예인이 ‘제2의 김태희’란 이름 아래 활동을 시작한다. 가수 이효리의 인기가 절정이었을 때는 자칭 타칭 ‘제2의 이효리’라는 연예인이 여러 명 등장했다. 미의 규격화와 획일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2. 완벽한 얼굴이미지

완전한 얼굴에 관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매스미디어의 급속한 확산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장 이상적인 미(美)이미지를 제시하였다. 미디어는 일상생활에 대한 규범의 틀을 부과함으로써 인간의 모든 이미지를 계획된 정보를 제공하여 간접적 방식을 통하여 아름다움에 대하여 객관화시켰다. 객관성은 대중들의 욕망으로 연결되고 미디어의 조작대로 우리의 미는 정의 되어갔다. 미디어에서 제시하는 아름다움은 여성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자극이 되고 이상적인 몸으로 정의되고 있다.

성형의료기술의 발달로 여성들에게 있어 외모는 더 이상 선천적인 자신의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대상이 아닌 자신의 욕망의 의지에 따라 개조가 가능한 변화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성형기술의 발달은 많은 여성들에게 사회의 시선에 따라 자신의 판단에 의해 선택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김주영, 2007:p.22).

소비문화는 이를 다양한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광고를 통해 매체의 메시지들을 통해 노동하는 몸은 이제 욕망하는 몸이 되기에 이른다. 여기서 미디어는 현대 사회에서 실재를 반영하기 보다는

구성해내는 힘을 가진 지배문화라고 할 수 있다. 미디어의 그러한 힘은 미디어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 그대로 전이되어 권력을 부과시킨다(김지연, 2002:p.33).

3. 다문화시대 여성의 얼굴이미지

민족은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 걸쳐 공동생활을 함으로써 언어, 풍습, 종교, 정치, 경제 등 각종 문화 내용을 공유하고 집단 귀속 감정에 따라 결합된 인간 집단의 최대 단위로서의 문화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는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문화적 공유성을 바탕으로 하여 전통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집단을 의미하며 이 경우에 문화란 언어, 종교, 세계관, 사회조직, 경제생활 및 그 밖의 생활양식 모두를 포괄하는 넓은 뜻을 지닌다.

민족은 인간에 의한 인간 자신의 분류 행위 중 하나이며 인종 관념과 서로 통한다. 인종은 피부색, 모발, 눈의 빛깔, 골격구조, 용모, 혈액형 등 여러 가지 신체적 특징에 의하여 인류를 나눈 단위이며, 민족은 역사적 운명과 문화적 전통 특히 언어를 공통으로 하는 사회집단을 기초로 인간의 후천적, 비유전적 특징에 의하여 분류한 단위이다.

서구 중심의 획일주의 사회에서는 서구 백인 문화가 가치의 기준이 되어 사회, 인종적 차이를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문화가 똑같이 적용되어 인종간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0세기 중반 이후 교통, 통신, 매스미디어의 발달은 국가와 민족 문화 간 시·공간의 경계의 붕괴로 인하여 수많은 인종과 민족의 혼성을 통해 다중정체성과 다문화주의 현상을 야기했다. 이에 서구가 강요해온 백인 중심의 절대미에 대한 추종에서 벗어나 미의 상대성이 대두되었고 유색인, 그리고 소수민족의 정체성이 반영되기 시작했다.

전통적인 서구가 강요한 백인 중심의 절대미에 대한 저항은 1950년대 인종차별에 대한 반항 운동으로 아프로 헤어스타일(Afro hairstyle)을 등장시켰는데 이는 인종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띠는 헤어의 재질이나 색깔, 스

타일 등의 특성이 인종과 관련된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나타내기도 한다. 흑인의 아프로 헤어스타일은 백인 우월주의에 저항하여 1950년대와 1960년대 민권운동과 흑인 운동이 주창한 "black is beautiful"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는 흑인의 긍지를 표시하는 가장 뚜렷한 이미지로 1960년대 후반의 반문화적 표현 방식의 하나이며, 단순히 패션요소라기보다 흑인의 권력을 상징적으로 표출하는 스타일 정치이라 할 수 있다(차채호, 나은영, 1996:pp.47~53).

드래드럭스(dreadlocks)역시 백인과 기독교 우위의 사회에 대한 저항을 표현하는 대표적 헤어스타일이다. 이는 라스타파리언(Rastafarians)들의 독특한 헤어스타일로, 라스타파리언들은 전통적인 기독교를 거부하고 흑인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백인 우위의 사회에 대해 종교적, 이데올로기적으로 반대해왔다. 이들은 드래드럭스를 자신들과 다른 집단을 차별화시켜 주는 유의미한 기표이자 정치적인 신념의 상징물로 활용하고 있다.

아프로 헤어스타일과 드래드럭스는 두발을 피부색에 못지않은 민족적 정체성 표출 방식으로 활용함으로써 신체적 외모 차이로 인해 받아온 차별의 부당함을 고발하고, 인종에 따른 억압과 편견에 저항하는 외모 표현 방식이며, 인간이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차별받을 수 없는 동등한 존재임을 강조하는 의미를 내포한다.

현대 포스트모더니즘 사회는 세계화와 다문화 주의를 지향한다. 서양 지배 문화하의 세계화에 따른 민족적 정체성은 문화적 동질화, 민족 정체성의 침식의 결과, 정통성 공통체의 소멸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세계화에 대한 저항으로서 민족적, 지역적, 특수주의적 정체성이 '강화'되고 있고 새로운 정체성이 등장 하고 있다. 이것이 실천적 대안이 다문화주의로 1980년대 말엽부터 미국 학계나 문학계에 일어나기 시작한 운동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문화를 보다 균형 있고 폭넓게 보려는 태도를 가지며 지배 민족 문화 뿐 아니라 소수 민족의 문화에도 관심을 갖자는 입장이다.

다문화 주의가 상징하는 문화는 특정 집단의 고정된 속성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집단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생겨나 산물이고 이러한 과정은 정치성을 띠어 소수 인종집단이 새롭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면

이 사실에 대한 정치적 인정을 요구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현대의 정보사회에서 전 세계의 네트워크화로 인한 이러한 다문화 현상은 다양한 지역문화의 자극과 접촉으로 문화현상의 모호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성에 있어서 제더리스(genderless), 연령에 있어서 에이저리스(ageless),민족에 있어서 레이스리스(raceless)라는 모호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레이스리스의 경향이 패션에도 빠르게 접목되었고 여러 나라의 이국적인 특성의 혼재에 의해 시간성과 장소성의 이질감은 이항대립의 구조로 특성화되어 표출되고 있다. 예를 들면, 런던을 비롯한 유럽에서 급속히 시작된 레이스리스는 나체에 뉴질랜드 원주민의 문신을 새기고 중국 청조의 변발을 연상시키는 머리를 하였으며, 미국 대중문화의 상징인 블루진을 입고 있다. 또 그 문신이 피부가 아닌 셔츠 위에 프린트되어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다양한 지역적 요소들은 각각의 독자성을 잃지 않고 서로 관련되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다. 패션에서도 이러한 다문화 현상은 다양한 나라에서 온 다양한 요소들을 한 데 부어 놓은 국적 불명의 이미지 표출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현상의 하나로 흑인 문화, 동양문화 등 다양한 지역적 모티브를 가진 이국적 이미지의 신체장식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이민선, 2010:p.27).

4. 전문직 여성의 얼굴이미지

최근 한 흡쇼핑이 명품전문 간판 프로그램을 석가탄신일인 휴일에 론칭을 결정해 화제가 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명품 프로그램은 남편이 출근한 이후 시간대인 평일 오전 10시 이후에 편성하는 것이 관례지만 더 이상 남편의 눈치를 보지 말고 당당하게 명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휴일에 론칭을 결정한 것이다. 또 백화점, 마트 등의 주요 소비층도 여성이 장악하면서 여성 전용주차장이 보편화된 것은 물론 수유실을 비롯해 미용실, 네일케어숍, 피부관리실 등 여성 고객을 위한 편의시설들이 곳곳에 들어서 있다. 여성 흡연자들을 위해 담배 이미지를 배제한 전용 치약까지 등장했다.

20~30년 전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낄 만큼 여성은 이제 사회 모든

분야에 활발하게 진출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으며 가정의 경제권을 쥐고 소비를 주도하는가 하면 주요 의사결정 등에서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한국 사회가 기존 '가부장제 사회'에서 '신(新)모계사회'로 변혁의 한 가운데 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고 육아를 주로 아내의 친정에서 맡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친정을 중심으로 한 '모계사회'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처럼 여성들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이유는 고소득 전문직에 진출하는 여성들이 갈수록 늘고 가정의 경제권도 장악하면서 발언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몇 년 사이에 고시 합격자와 의사 등 여성 전문직의 비중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 활동 모습의 특징은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와 출산율의 하락 M자형 고용구조, 경력단절 여성의 비정규직 복귀 증가, 고학력·고소득·전문직 여성 근로자의 증가로 요약되어지고 있다(양지니, 2011:p.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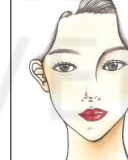
제 4 장 얼굴이미지 유형에 따른 수정메이크업 표현 기법 제안

제 1 절 관상학적 얼굴이미지 유형에 따른 수정메이크업 연구 사례

1. 사례 1 이미지 상승효과를 위한 메이크업 스타일

이미지 상승효과를 위한 메이크업 스타일을 얼굴형에 의하여 연구한 계측방법으로 직접계측과 간접계측을 병행하여 안면부위 24항목의 계측치를 산출하여 연구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얼굴유형은 [표 5] 와 같이 계란형, 둥근형, 긴 형, 사각형, 역삼각형, 삼각형의 6가지 얼굴형으로 분류하였다.

[표 5] 이미지 상승 효과를 위한 메이크업 스타일 연구

계란형	둥근형	긴형	사각형	역삼각형	삼각형
					

출처: 백고은 作

한보현(2009:p.46)은 얼굴형태 지각차이는 사각형은 넓고 각지게, 둥근형은 완만하게, 긴 형은 좁고 길게, 삼각형은 각지고 뚜렷하게, 계란형은 조화롭게 지각하였다. 볼과 눈 메이크업 시 얼굴을 조화롭고 입체적으로 평가하였다. 눈형태 지각 차이는 사각형은 작게, 둥근형은 짧게, 긴 형은 길게 지각하였고, 눈 메이크업 시 눈이 크고, 뚜렷하고, 날카롭게 평가되었다. 입 형태 지각차이는 입 메이크업 시 입이 길고, 뚜렷하게 지각했으며,

계란형과 삼각형에서 입 메이크업을 조화롭게 평가하였다. 볼 형태 지각차이는 긴 형은 좁게, 사각형, 둥근형, 삼각형은 넓고, 크게 지각하였고, 볼과 눈 메이크업 시 작고, 짧고, 올라가 보이게 평가하였다. 성별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얼굴을 더 크게, 넓게, 조화롭지 못하게 평가하고, 눈의 형태는 더 선명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이크업 선호도 차이는 호감형은 계란형과 둥근형이며, 계란형은 조화롭게, 둥근형은 건강하게 평가하였다. 피부, 볼, 눈 메이크업 시 조화로운 얼굴로 지각하였고, 여성이 남성보다 호감도를 더 높게 평가한다고 하였다.

전체적으로 메이크업에 있어서 얼굴형과 메이크업 스타일은 영향력 있는 요소로 작용함으로 메이크업을 함에 있어서 얼굴형과 부분 메이크업들이 서로 영향을 주는 상호 수정효과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또한 볼과 눈 메이크업이 형태지각과 이미지 지각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볼 때, 눈과 볼 메이크업의 효과와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입 메이크업은 얼굴이미지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입 메이크업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수정 메이크업은 각 얼굴 부위의 결점을 보완하여 본인의 이미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으로 얼굴형의 경우 입체적이며, 가름한 얼굴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미인의 얼굴형이라 할 수 있는 계란형에 가깝도록 블러셔 등을 이용하여 광대뼈와 옆 턱선을 중심으로 그라데이션을 주어 작고 가름한 얼굴 형태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눈썹은 과도하게 크거나 각지게 표현하기보다는 부드럽고 완만한 곡선을 처리하는 것이 좋으며, 자신의 피부 톤보다 조금 더 진하게 눈썹 색상을 표현하고 술이 많아보이도록 덧칠하기 보다는 펜슬로 잘 다듬고 부드럽게 색상이 표현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눈은 과도하게 짙고 넓은 아이라인보다는 자연스럽고 또렷한 눈매로 보이도록 아이라인을 그리는 것이 좋으며, 아이새도 색상 선택에 있어서도 2~3가지 색을 이용한 자연스러운 색상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 코는 얼굴의 중심으로 선명한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입체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에도 블러셔 등을 이용하여 입체감을 살리지만 과도한 표현은 오히려 얼굴과 코의 경계를 뚜렷하게 하여

입체감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는 것이 요구된다. 입술은 입술라인을 진하게 표현하기보다는 꼼꼼하게 입술 전반에 걸쳐 메이크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최근 글로우즈 등이 유행하여 반작임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조절이 요구된다.

얼굴 이미지는 대와 장소, 헤어스타일, 의복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 메이크업 표현이 중요하며, 이때 자신의 결점을 보완할 수 있는 메이크업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사례 2 관상학적 관점의 동안 이미지를 위한 미의 가치관 연구

동안 이미지 열풍에 대한 문헌 연구를 통하여 얼굴 부위의 미의 가치관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시대가 바뀌어 감에 따라 미(美)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는 심리적 요인도 ‘동안 열풍’의 배경으로서 작용한다. Thomson(1999)에 의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 신체형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의해 결정되며 개인이 신체를 보는 방법이나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 또한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 기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런 가정이 맞다면 사회의 변화에 따라 아름다운 얼굴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변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그리고 정보화 사회, 글로벌 사회로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가치관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듯이 미인관도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연세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에서는 2006년에 활발히 활동했던 여자 연예인과 2012년 활동했던 여자 연예인들의 얼굴을 비교하는 실험을 한 결과 2012년 연예인들에게서 ‘옛된 인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매우 성숙한 인상’은 급격히 감소한 결과가 나타났다. ‘2006 : 2012’의 얼굴 길이나 폭, 전체 비율을 살펴보면, 우선 2006년에 비해 2012년 연예인들의 이마 길이가 길어졌고 눈 길이가 길어졌으며 눈썹 두께가 두꺼워졌다. 또한 턱의 길이는 짧아졌고 얼굴형은 더 가름해 지고 긴 형과 네모 형이 줄어들었다. 입술은 좀 더 좁아지고 도톰

해 졌다. 이러한 인상은 옛된 모습으로 ‘동안’ 얼굴로의 변화를 알 수 있다 [표 6]. 지난 30년 동안 미스코리아 대회 본선 수상자 1백 71명의 얼굴 변화를 조사한 결과 기준이 가장 뚜렷하게 변한 부위는 이마와 턱으로 시간이 갈수록 이마는 상대적으로 길어지고, 턱은 반면에 짧아졌으며 얼굴과 입술 모양도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얼굴이 다소 각지고 입술 선이 가늘었던 예전 미인들 얼굴에 비해, 최근 미인들은 얼굴이 둥글고 길어졌으며 입술은 더 도톰해졌다. 이는 윤곽이 강하고 성숙한 얼굴이 미인형으로 꼽혔던 과거와는 다른 얼굴로 미인의 기준이 어린 아이의 얼굴과 유사한 방향으로 닮아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옛된 얼굴의 사람을 성격면에서도 순진하고(McArthur&Apatow, 1983) 정직하다고(Keating, Randall&Kendrick) 느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선호도 있다. 동안을 매력적이고 예쁘다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의 의식 속에 순수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 어린 아이의 아름다움을 무의식 중에 얼굴에서 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사람들의 얼굴이 변하였다고 보다 선호하는 인상이 바뀐 것으로 풀이할 수 있으며 아이 같은 얼굴이 이제는 아름다운 얼굴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회·문화 환경적인 요인이 심리와 맞물려 젊어지고자 하는 욕망에서 출발한 ‘동안 증후군(syndrome)’은 이제 하나의 단편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한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주도하는 열풍으로까지 번지게 됨으로 인해 트렌드에 민감한 미용 및 뷰티 산업 분야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표 6] 2006년과 2012년의 한국 여자 연예인 얼굴 특징 비교

부위	2006:2012 비교 사진	특징
이마와 턱	 <이마와 턱 길이 비교>	왼쪽부터 노현정(2006), 이지애(2012) 김민희(2006), 소희(2012). 이마길이가 더 길어지고 턱의 길이는 짧아졌다.
눈	 <눈의 변화>	왼쪽(2006):위부터 이영애, 김희선, 한채영. 오른쪽(2012):위부터 아이유, 효민, 박보영. 눈의 꼬리가 내려갔으며, 눈썹은 풍성하고 견고해 졌다. 눈썹길이는 상대적으로 짧아졌다. (특히 뒤편 눈썹 길이 : 화장술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입술	 <입술의 변화>	왼쪽(2001):위부터 공효진, 김민희, 윤은혜. 오른쪽(2006):위부터 서현, 윤아, 수지. 입술의 경계선이 모호해지고 전체적으로 열어짐.

제 2 절 성형미인 얼굴이미지 유형에 따른 수정메이크업 연구 사례

1. 사례 1 한국 미인형 비례에 기준한 얼굴유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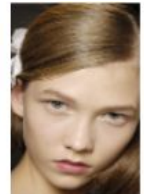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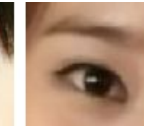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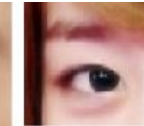
한국 미인형 비례에 기준한 얼굴 유형을 분석한 어여름(2010:p.51)은 성형학에서 기준하는 미인형 얼굴비례가 미스코리아의 얼굴비례와 비교했을 때, 성형학 기준 비례가 실제 적용되는가의 여부를 알기위해 미스코리아 12인을 선정하여 얼굴의 가로세로비율과 상중하안 비율을 조사하였다 [표 6] .

그 결과 유지은, 오유미등 4명은 가로 등분 비례 $0.8 : 1 : 1$ 이며 외8인은 현대 성형학에서 이상적 미인형에 기준한 $0.8 : 1 : 0.8$ 의 비례로 조사되었으며 가로, 세로 비율은 평균 $1 : 1.601$ 로 나타나 현대사회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미인의 얼굴형의 비율을 파악할 수 있었다.

2. 사례 2 이상적인 동안 이미지를 위한 수정메이크업 사례

‘동안’이 하나의 사회현상을 넘어서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미인의 기준에 동안은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동안 이미지를 연출하기위한 메이크업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표 7] .

[표 7] 동안 메이크업

신체부위	신체부위별 동안메이크업				
안면					
					
눈썹과 눈					
입술					
볼					

1) 안면 메이크업

색조를 최대한 억제하고 파운데이션이나 팩트, 블레미쉬 밤(blemish balm)을 사용해 자연스럽게 피부 상태를 드러내면서 맨 얼굴인듯한 느낌을 강조한 메이크업 이다. 잡티를 감추고 기름기를 가려주는 정도로 가볍게 표현한다.

물광 메이크업은 이전에 대세를 이뤘던 컬러 표현 메이크업에서 질감을 강조한 피부표현 메이크업으로 유행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물광 메이크업은 촉촉한 느낌을 강조하다보니 펴 제품을

적극 활용하여 글로시한 느낌표현을 주로 하였다.

인위적인 번들거림이 아닌 촉촉하게 빛나는 수분감 있는 피부 표현을 통해 건강함을 강조하기 위해선 피부에 두께감을 주는 파운데이션보다 수분이 많이 함유된 메이크업 베이스를 활용하는 게 핵심이다. 여기에 액상 타입의 브라이어(Brighter-얼굴의 음영을 표현하기 위한 메이크업 제품)를 이마와 콧등, 턱에 살짝 발라줘 또렷한 인상을 만든 후 물기를 잃지 않도록 브러시를 이용해 팩트(고형 파우더)를 발라 준다. 피부 화장은 기미, 주근깨, 여드름 자국 같은 잡티가 보일 정도로 얇게 하고, 코나 광대뼈, 턱 같은 부분은 펄을 덧발라 입체감과 광택감을 주는 게 포인트이다.

마지막으로 아주 소량의 가루 파우더만을 사용하여 피지를 잡아주면 물광 오른 피부가 완성된다. 물광 메이크업은 피부 본연의 생기와 빛을 강조하는 게 목적이므로 색조 화장도 최소화, 연한 립글로스로 얼굴에 생기를 주는 정도로 마무리하면 된다.

피부가 실크처럼 매끄러운 윤기를 지니되 건조함이 느껴지지 않는 정도의 '세미 매트'한 느낌을 강조한다. 아기 피부처럼 보송보송한 질감에 은근히 감도는 빛이 특징인 윤광 메이크업 방법은 미세한 펄이 들어있는 메이크업 베이스를 바른 뒤 브러시나 입자가 고운 스펀지로 가볍게 두드리듯 파운데이션을 바른다. 여기에 팩트나 수분이 많은 미네랄파우더를 브러쉬로 전체적으로 한두번 쓸어주고 유분이 많은 부분은 추가로 브라이어로 눌러준다. 물광 메이크업 만큼은 아니지만 약간의 반짝임이 표현되는 만큼 펄감이 강한 색조화장은 피한다.

2) 포인트 메이크업(Point Make-up)

눈은 샤이니하고 은은한 펄감이 있는 크림타입, 스폰즈 타입, 액상 타입 등 부드러운 제형의 제품을 사용하여 피부결을 살려 글로시 하면서 촉촉한 눈매를 표현하며, 볼은 크림타입의 블러셔를 이용해 촉촉하면서도 윤기 있는 볼을 표현한다.

립 메이크업 전 립밤으로 충분한 수분 공급을 해준 후 수분감이 많은 립글로스나 글로스 스틱을 이용해 촉촉하며 윤기나는 입술을 표현하였다.

입술주름이 유난히 많고 입술이 얇은 경우엔 좀 더 볼륨있는 립메이크업 연출을 위하여 립플럼프(Lip plump)를 사용하여 도톰하고 매끄러운 입술로 표현한다.

3) 포인트 메이크업 형태

컬러 메이크업에서 질감을 강조한 스킨 메이크업으로 변화함에 따라 형태와 색상은 다소 내추럴 하며, 형태적 요소에서는 부위별 동안의 특징을 살리면서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눈썹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눈썹 색은 진하지 않게, 술은 풍성하게, 눈썹 꼬리는 짧게 다듬는다. 잘 다듬어진 인위적인 느낌보다 본연의 결이 살아있는 눈썹 형태, 산이 높지 않고 짧으며 평상시의 눈썹보다 다소 두꺼운듯 정리되지 않은 듯한 눈썹표현이 훨씬 어려보일 수 있다. 지저분한 눈썹만 정리하고 본인의 원래 눈썹을 그대로 살려 자연스러운 형태를 만들었고 브러쉬로 앞머리를 살려 정리하고 눈썹 사이사이 빈곳은 아이브로우 새도우를 이용하여 매우듯 그려준다. 눈썹은 너무 두껍거나 진하면 남성적이고 강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머리카락 컬러에 맞춰 자연스러운 컬러를 선택하며, 너무 진하고 거센 눈썹의 경우 투명 마스카라를 이용해 눈썹 결대로 자연스럽게 발라주어 부담스럽지 않게 표현한다.

눈은 눈 밑이 밝고 애교살이 있으며 눈동자가 커 보이면 더 어려 보인다. 두꺼운 아이라인은 강한 인상을 주므로 피하고 대신 마스카라 전 아이래쉬컬(뷰러)을 사용하고 마스카라를 꼼꼼하게 발라주어 풍성하고 높이 올라간 속눈썹을 만들어준다. 아이새도우보다 진한 색으로 아이라인을 속눈썹 사이사이를 메워주듯 그려주어 또렷한 눈매를 표현하며, 눈 밑 언더라인을 그리지 않는대신 눈 앞머리에 펄이 들어간 밝은 색 하이라이트를 이용해 눈 밑 애교살을 강조해주면 한층 밝은 느낌과 눈매가 둥글게 보이는 효과를 연출한다.

볼은 볼록하고 생기 있는 표현을 위해 광대 위주의 사선형태 블러셔가 볼을 중심으로 웃었을 때 가장 올라온 부위로 이동 하고 하이라이트를 이용해 입체감을 주어 볼륨감 있는 얼굴형으로 표현한다.

입술은 인위적으로 입술산을 만들거나 라인을 수정하지 않고 본연의 입술에서 작고 도톰하며 촉촉한 입술로 표현하며, 입술선이 흐린 경우엔 입술색에 가까운 립펜슬을 이용해 입술산과 아랫입술의 윤곽만 살짝 잡아주고 립글로스를 입술 중앙에 바르며 그라데이션 시켜 또렷하면서도 볼륨감 있는 입술로 연출한다.

4) 색조메이크업

동안열풍으로 인해 변화된 메이크업의 가장 큰 특징이 ‘색상의 최소화’로 컬러감 있는 색조화장이 배제되었고 내추럴한 컬러들을 주로 사용한다.

베이스는 피부 톤을 보정해주는 컬러감 있는 메이크업 베이스의 사용이 줄어들고 피부결을 정리해주는 프라이머의 등장으로 전체적인 베이스 컬러로 사용한다.

눈썹은 펜슬타입 보다는 새도우 타입을 사용하여 그라데이션 하며, 블랙이나 그레이 컬러보다는 브라운계열이나 카키 등 헤어컬러와 눈동자 컬러에 맞춰 자신에게 맞는 자연스러운 컬러의 눈썹을 표현한다.

눈은 스킨컬러와 비슷한 누드베이지 계열이나 베이지 핑크 톤을 사용하여 자연스럽고 환하게 표현하고, 블랙보다는 브라운이나 카키계열의 새도우나 펜슬 라인을 사용하여 속눈썹 사이를 메우듯 라인을 연출하여 자연스러우면서도 또렷한 눈매를 연출한다.

볼은 활짝 웃었을 때 가장 높이 올라오는 볼 부위를 따라 자연스러운 혈색을 연출할 수 있는 핑크, 살구, 장밋빛 계열의 블러셔로 생기있게 표현하고 브라운 계열의 채도가 낮은 색상은 무거워 보일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입술은 혈색이 도는 입술표현을 위해 핑크톤과 붉은계열의 컬러를 사용하여 건강한 입술을 연출하고 입술색이 흐린 경우엔 붉은계열의 립스틱이나 틴트를 찍어 바르듯 가볍게 연출 한 뒤에 립글로스를 덧발라 좀 더 혈색이도는 입술을 표현한다

3. 사례 3 인상 중심의 메이크업 테크닉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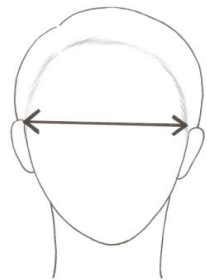
얼굴 구성 요소의 메이크업 테크닉을 통한 조형적 아름다움을 얼굴의 황금 비율에 따라 이상적인 얼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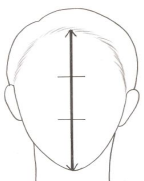
얼굴을 구성하는 골격과 근육은 메이크업을 함에 있어 중요하다. 전반적인 이마의 형태를 담당하는 이마골격(전두골)과 양쪽 귀 윗선을 따라 이마를 중심으로 양쪽 측면 부분인 관자놀이뼈(측두골), 뺨의 양쪽 윗 부분인 광대뼈(관골), 코의 윗부분인 코뼈(비강), 눈의 앞쪽부분의 작은 뼈인 안와(안동구), 턱을 중심으로 윗부분에 해당하는 위턱(상악골), 턱을 중심으로 아랫부분인 아래턱(하악골)으로 구성된다.

얼굴의 윤곽을 보면, 이마와 뺨(볼) 부분은 수직으로 균형이 맞아야 하며 곧게 보이고, 헤어라인(hair line)을 시작으로 이마 안쪽에서 코를 기준으로 볼의 위치 등이 적당한 분할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여러 다른 형태의 얼굴형과 이목구비를 균형 잡혀 보이도록 하는 일은 몹시 어렵다. 단순히 둥근얼굴, 사각형 얼굴, 긴얼굴형 뿐만 아니라 혼합형도 많으므로 그에 따른 메이크업계획이 필요하다. 얼굴형의 교정방법을 통하여 얼굴의 입체적인 색조를 선택하고 응용하여, 형태를 만들어 내는 균형잡힌 메이크업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8] 이상적인 얼굴의 황금 비율

얼굴 부위	얼굴의 황금비율	
얼굴의 폭	얼굴의 가로 : 세로의 비율이 1 : 1.618이다. 눈의 가로 폭을 1이라 하면, 귀에서 눈 꼬리 까지의 간격, 눈 꼬리에서 눈앞머리의 간격, 눈과 눈 사이의 간격이 동일하게 하여 전체 폭은 5이다.	

얼굴의 길이	전체적으로 3등분하여 이마의 머리카락이 난 언저리부터 눈썹까지의 간격, 눈썹에서 코 끝까지의 간격, 코끝에서 부터 턱까지의 간격이 같아야 한다.	
눈	이마의 머리카락이 난 부분부터 입 꼬리에 이르는 부위까지 이등분한 지점에 위치하며, 눈의 가로길이는 얼굴의 폭을 5라고 할 때 1에 해당되며, 눈의 세로길이는 가로길이의 $\frac{1}{5}$ 이다.	
눈썹	이마의 머리카락이 난 부분부터 턱끝까지의 길이를 3등분 하여 $\frac{1}{3}$ 지점에 해당한다. 눈썹의 길이는 눈 꼬리와 콧 망울을 잇는 연장선상에 눈썹 꼬리가 오게 된다.	
코	콧 망울과 콧 망울의 폭은 코의 길이를 100으로 했을 때 64정도가 이상적이다.	
입술	입의 가로 길이는 두 눈동자의 안쪽을 지나는 수직선보다 크지 않으며 대략 눈의 가로 길이의 1.5배 정도이며, 입은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3:1이다.	
귀	코의 위치와 얼굴의 중부에 위치하여 동일한 높이를 유지한다.	

제 3 절 얼굴이미지 유형에 따른 수정 메이크업 표현 기법 제안

1. 눈썹 수정 메이크업 제안

눈썹은 얼굴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비중이 큰 부분이다. 눈썹으로 인한 분위기의 변화를 연출하고 얼굴의 균형을 맞추는 조화 있는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 눈썹은 그 색상에 따라 이미지가 달라 보인다. 기본적으로 모발이나 눈동자 색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무난하다.

기본적인 눈썹의 입체감은 눈썹머리(Hi-light)는 가장 연하게 그리며, 눈썹 꼬리는 베이스(Base)로 자연스럽게, 눈썹산은 포인트(Point)로서 가장 진하게 그려줌으로서 자연스러운 눈썹으로 연출된다.

얼굴이미지 계란형은 기본적인 얼굴형으로 어느 눈썹모양이든 잘 어울린다 [표 9] .

얼굴이미지 둥근형은 상승 느낌이 나듯이 그려 지적인 느낌을 주고 각진 형 눈썹의 꼬리를 그려 줌으로 세련된 이미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눈썹을 둥근 얼굴이나 얼굴의 길이가 짧은 사람에게 잘 어울린다 [표 10] .

얼굴이미지 긴형은 수평적인 일자형 눈썹으로 긴 얼굴을 분할시켜 주고 자연스러운 굽기의 눈썹이 젊고 활동적인 느낌을 주어 길고 폭이 좁은 얼굴에 잘 어울린다 [표 11] .

얼굴이미지 사각형은 눈썹이 너무 가늘지 않게 그려 각진 얼굴을 커버하고 여유 있는 곡선으로 매끄러운 아치형이나 화살 형으로 그려 줌으로써 매혹적이면서 우아하고 여성적인 느낌을 준다 [표 12] .

얼굴이미지 역삼각형은 인위적인 눈썹은 넓은 이마를 더욱 강조 하므로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표현 해준다 [표 13] .

얼굴이미지 삼각형은 완만한 눈썹 산을 표현하되 길게 그려 삼각형 얼굴의 단점을 보완 해 준다 [표 14] .

[표 9] 계란형에 어울리는 눈썹 수정 메이크업 제안

● 계란 얼굴형에 어울리는 눈썹

기본적인 얼굴형으로 어느 눈썹모양이든 잘 어울린다.



before

af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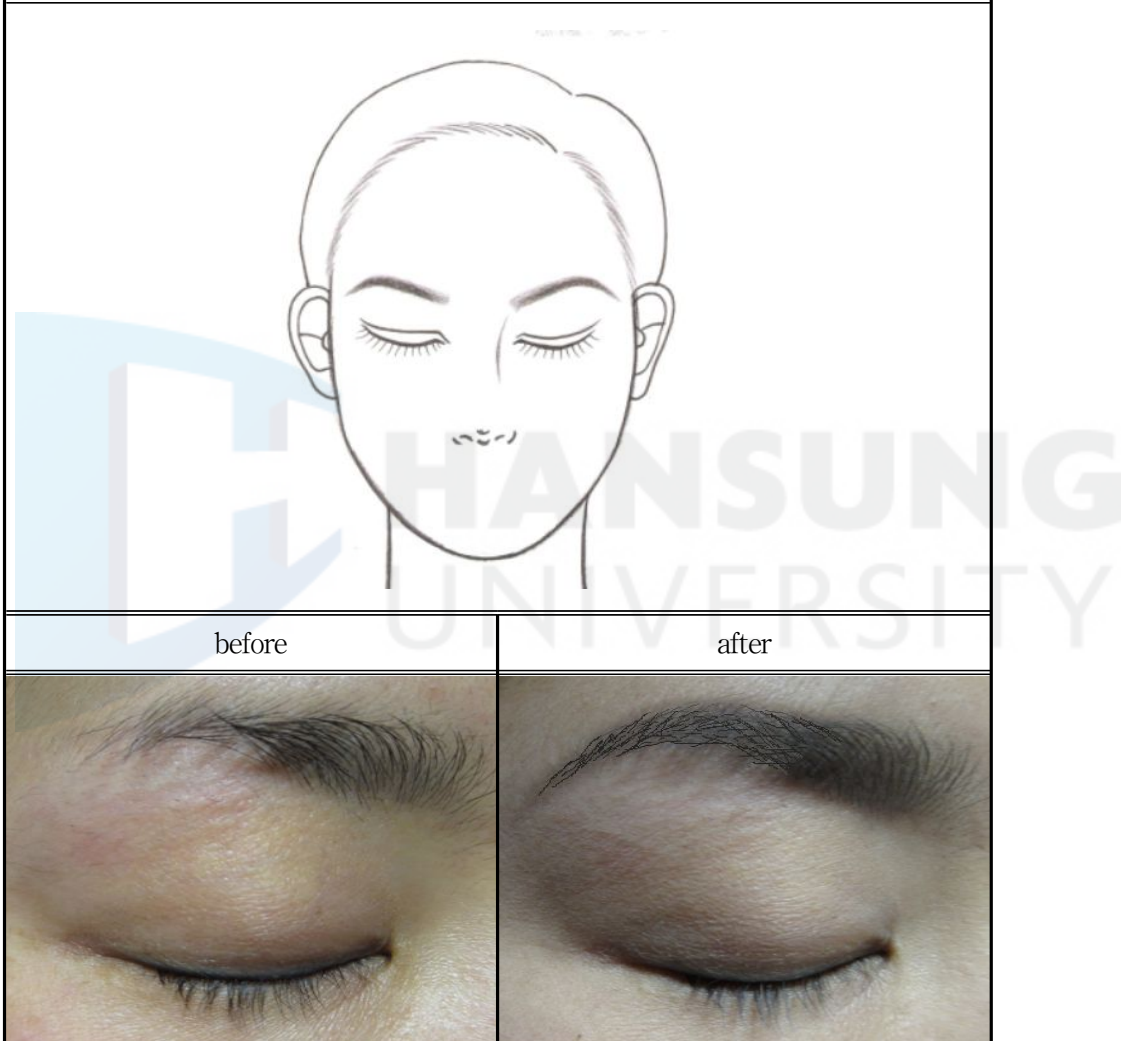


[표 10] 둥근형에 어울리는 눈썹 수정 메이크업 제안

● 둥근형에 어울리는 눈썹

상승 느낌이 나듯이 그려 지적인 느낌을 주고 각진 형 눈썹의 꼬리를 그려 줌으로 세련된 이미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눈썹을 둥근 얼굴이나 얼굴의 길이가 짧은 사람에게 잘 어울린다.



[표 11] 긴 형에 어울리는 눈썹 수정 메이크업 제안

● 긴 형에 어울리는 눈썹

수평적인 일자형 눈썹으로 긴 얼굴을 분할시켜 주고 자연스러운 굽기의 눈썹이 젊고 활동적인 느낌을 주어 길고 폭이 좁은 얼굴에 잘 어울린다.



before

after



[표 12] 사각형에 어울리는 눈썹 수정 메이크업 제안

● 사각형에 어울리는 눈썹

눈썹이 너무 가늘지 않게 그려 각진 얼굴을 커버하고 여유 있는 곡선으로 매끄러운 아치형이나 화살 형으로 그려 줌으로써 매력적이면서 우아하고 여성적인 느낌을 준다.



[표 13] 역삼각형에 어울리는 눈썹 수정 메이크업 제안

● 역삼각형에 어울리는 눈썹

인위적인 눈썹은 넓은 이마를 더욱 강조 하므로 눈썹산의 위치를 눈썹길이의 2분의1 정도에 주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표현 해준다.



[표 14] 삼각형에 어울리는 눈썹 수정 메이크업 제안

● 삼각형에 어울리는 눈썹

완만한 눈썹 산을 표현하되 길게 그려 삼각형 얼굴의 단점을 보완 해 준다.



before

after



2. 눈 형태별 수정메이크업 제안

아이섀도우는 눈 주변 부분과 눈두덩이에 눈의 단점을 보완하고 음영과 색감의 깊이를 주어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한 화장법이다. 단순히 눈의 모양뿐만 아니라, 주변의 피부색, 눈썹, 코의 모양 등의 조화가 중요하다.

아이메이크업은 아이브로우, 아이섀도우, 아이라인, 마스크라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위에서 아래의 순서대로 행하는 것이 색조가 번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큰 눈의 수정 메이크업은 아이라인을 눈 전체에 그리지 말고 속눈썹 안쪽으로 바깥 붙여 그려준 다음 언더라인 3분의 1정도에서 그라데이션 한다. 아이섀도우는 진한 색보다 자연스러운 색을 선택한다 [표 15].

작은 눈의 수정 메이크업 눈 꼬리부분에서부터 다크한 색상으로 자연스럽게 퍼 발라준 다음 아이라인을 다른 눈에 비해 다소 굵게 그려 준다 [표 16].

홀겁 눈의 수정 메이크업은 눈을 크고 뚜렷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라인을 강조하거나 아이섀도우를 쌍꺼풀 두께만큼 포인트 컬러를 그라데이션 시켜 준다 [표 17].

미간이 좁은 눈은 눈과 눈 사이가 가깝기 때문에 눈앞머리는 밝게 하이라이트를 주고 눈 꼬리 쪽으로 포인트를 준다 [표 18].

미간이 넓은 눈은 눈과 눈 사이가 멀기 때문에 눈앞머리에 아이섀도우로 음영을 준 다음 진한 아이섀도우를 사용하여 포인트를 주어 미간의 넓이를 좁혀 준다 [표 19].

[표 15] 큰 눈의 수정 메이크업 제안

- 큰 눈의 수정 메이크업

아이라인을 눈 전체에 그리지 말고 속눈썹 안쪽으로 바짝 붙여 그려준 다음 언더라인 3분의 1정도에서 그라데이션 한다.

아이섀도우는 진한 색보다 자연스러운 색을 선택한다.



[표 16] 작은 눈의 수정 메이크업 제안

● 작은 눈의 수정 메이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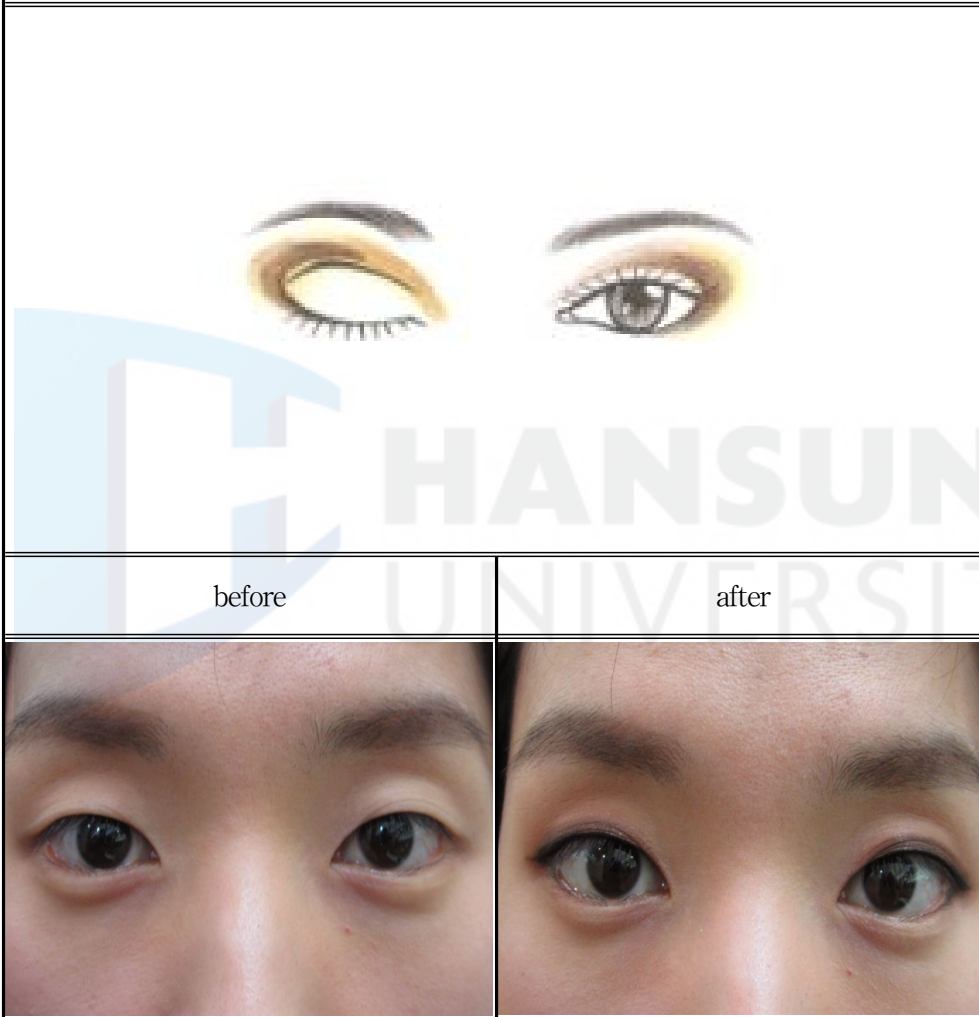
눈 꼬리부분에서 짙은 색의 아이섀도우로 자연스럽게 펴 발라준 다음
아이라인을 다른 눈에 비해 다소 굵게 그려 준다.



[표 17] 흘겹 눈의 수정 메이크업 제안

● 흘겹눈의 수정 메이크업

눈을 크고 뚜렷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라인을 강조하거나 눈 꼬리에 포인트를 주어 그라데이션 해주고 아이홀 부분까지 포인트 아이섀도우를 펴 발라준다. 눈썹 뼈 부분은 하이라이트를 주어 평면적인 눈을 입체적으로 표현해준다.



[표 18] 미간이 좁은 눈의 수정 메이크업 제안

● 미간이 좁은 눈의 수정 메이크업

눈과 눈 사이가 가깝기 때문에 눈앞머리에서 중간까지 밝은 색상을 발라 눈 사이의 간격을 여유 있어 보이도록 한다.

포인트 아이섀도우로 눈 꼬리 쪽을 언더라인과 연결하여 바깥쪽으로 연장 시켜준다.



[표 19] 미간이 넓은 눈의 수정 메이크업 제안

● 미간이 넓은 눈의 수정 메이크업

눈과 눈 사이가 멀기 때문에 눈앞머리를 포인트 아이섀도우로 강조하여 눈 사이의 간격을 좁아보이도록 하며, 눈 꼬리 쪽으로 포인트가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 한다.



3. 코 형태별 수정메이크업 제안

코의 음영을 주는 것은 코를 높여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콧날이 오뎝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밝은색 계열에 어두운 색을 두면 더 밝아 보이고 어두운 색을 더욱 더 어둡게 보이려는 명도대비를 이용하여 코 화장술에 이용한다. 코 양측면에 갈색 새도우를 펴 발라 그림자를 넣어준다. 브러시로 눈썹 앞머리에서부터 수직으로 노즈새도우를 넣어주며, 부드럽게 터치하여 자연스러운 음영이 생기도록 한다. 노즈새도우의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콧날에 밝은 하이라이트를 준다.

긴 코는 눈썹 앞머리와 연결하는 노즈새도우를 생략하고 코 끝부분에 음영을 넣어 코가 짧아 보이는 효과를 준다 [표 20].

짧은 코는 눈썹 앞부분에서 부터 노즈새도우를 시작 하여 코 끝부분까지 음영을 연결하여 넣어준다 [표 21].

콧등이 낮은 코는 콧등에 하이라이트를 주고 콧등 옆 부분을 노즈새도우로 음영을 주어 콧등이 높아 보이는 효과를 준다 [표 22].

두께가 넓은 코는 콧등의 하이라이트를 코의 두께보다 얇게 펴 바른 다음 하이라이트 부분과 연결 시켜 음영을 넣어 준다 [표 23].

두께가 좁은 코는 콧등의 하이라이트를 코의 두께보다 넓게 펴 바른 다음 하이라이트 부분과 연결시켜 음영을 넣어 준다 [표 24].

[표 20] 긴 코의 수정 메이크업 제안

● 긴 코의 수정 메이크업

긴 코의 경우 눈썹 앞머리와 연결하는 노즈새도우를 생략하고 코 끝부분에 음영을 넣어 코가 짧아 보이는 효과를 준다.



[표 21] 짧은 코의 수정 메이크업 제안

● 짧은 코의 수정 메이크업

짧은 코의 경우 눈썹 앞부분에서 부터 노즈섀도우를 시작 하여 코 끝부분 까지 음영을 연결하여 넣어준다.



[표 22] 콧등이 낮은 코의 수정 메이크업 제안

● 콧등이 낮은 코의 수정 메이크업

콧등에 하이라이트를 주고 콧등 옆 부분을 노즈섀도우로 음영을 주어
콧등이 높아 보이는 효과를 준다.



[표 23] 두께가 넓은 코의 수정 메이크업 제안

● 두께가 넓은 코의 수정 메이크업

코등의 하이라이트를 코의 두께보다 얇게 펴 바른 다음 코의 측면 부분에 음영을 주어 하이라이트 부분과 연결 시켜준다.



[표 24] 두께가 좁은 코의 수정 메이크업 제안

● 두께가 좁은 코의 수정 메이크업

콧등의 하이라이트를 코의 두께보다 넓게 펴 바른 다음 하이라이트 부분과 연결시켜 음영을 넣어 준다.



4. 입술 형태별 수정메이크업 제안

입술만큼 얼굴의 표정을 좌우하는 곳도 드물다. 입술은 움직임이 가장 많은 곳으로 입을 다물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와 각도를 생각해서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윤곽을 살려주고 얼굴의 색감을 한층 더 매력 있게 해주며 혈색을 부여함으로써 얼굴 전체를 생동감 있게 표현해준다.

얇은 입술은 본래의 입술 윤곽보다 1~2mm 정도 늘려서 그리며, 입술 양 꼬리를 붙여 크게 보이도록 아웃커브를 응용한다 [표 25].

두터운 입술은 본래의 입술 윤곽선보다 1mm 정도 적게 인p커브로 그리고 컨실러를 사용하여 본래의 입술 선을 감춘다 [표 26].

작은 입술은 각의 위치를 좌우 대칭 되게 1~2mm 정도 넓게 그리고, 입술산을 강조 시켜 주며 입술 중앙에는 연한색이나 펄로 확산 효과를 준다 [표 27].

큰 입술은 컨실러를 사용 하여 본래의 입술 선을 감추고 본래의 입술라인보다 1~2mm 안으로 그려준다 [표 28].

윗입술이 두꺼운 입술은 윗입술만 윤곽선 보다 1~2mm 정도 작게 그리고 그에 비해 아랫입술은 늘려 그린다. 동일색상을 바르되 윗입술을 아래 입술보다 조금 밝게 그린다 [표 29].

구각이 처진 입술은 구각을 1~2mm 정도 위로 그려 처진 입술을 보완하여 활기 있어 보이는 얼굴을 연출하고 윗입술은 인커브 라인으로 그려준다. 이 때 구각을 너무 올려 아랫입술과의 조화가 부자연스럽지 않게 주의한다 [표 30].

[표 25] 얇은 입술의 수정 메이크업 제안

● 얇은 입술의 수정 메이크업

본래의 입술 윤곽보다 1~2mm 정도 늘려서 그리며, 입술 양 꼬리를 붙여 크게 보이도록 아웃커브를 응용한다.



before

after



[표 26] 두터운 입술의 수정 메이크업 제안

● 두터운 입술의 수정 메이크업

본래의 입술 윤곽선보다 1mm정도 적게 인커브로 그리고 컨실러를 사용하여 본래의 입술 선을 감춘다.



before

after



[표 27] 작은 입술의 수정 메이크업 제안

● 작은 입술의 수정 메이크업

각의 위치를 좌우 대칭 되게 1~2mm 정도 넓게 그리고, 입술산을 강조시켜 주며 입술 중앙에는 연한색이나 펄로 확산 효과를 준다.



[표 28] 큰 입술의 수정 메이크업 제안

- 큰 입술의 수정 메이크업

컨실러를 사용 하여 본래의 입술 선을 감추고 본래의 입술라인보다 1~2mm 안으로 그려준다.



before

after



[표 29] 윗입술이 두꺼운 경우의 수정 메이크업 제안

● 윗입술이 두꺼운 입술의 수정 메이크업

윗입술만 윤곽선 보다 1~2mm 정도 작게 그리고 그에 비해 아랫입술은 늘려 그린다. 동일색상을 바르되 윗입술을 아래 입술보다 조금 밝게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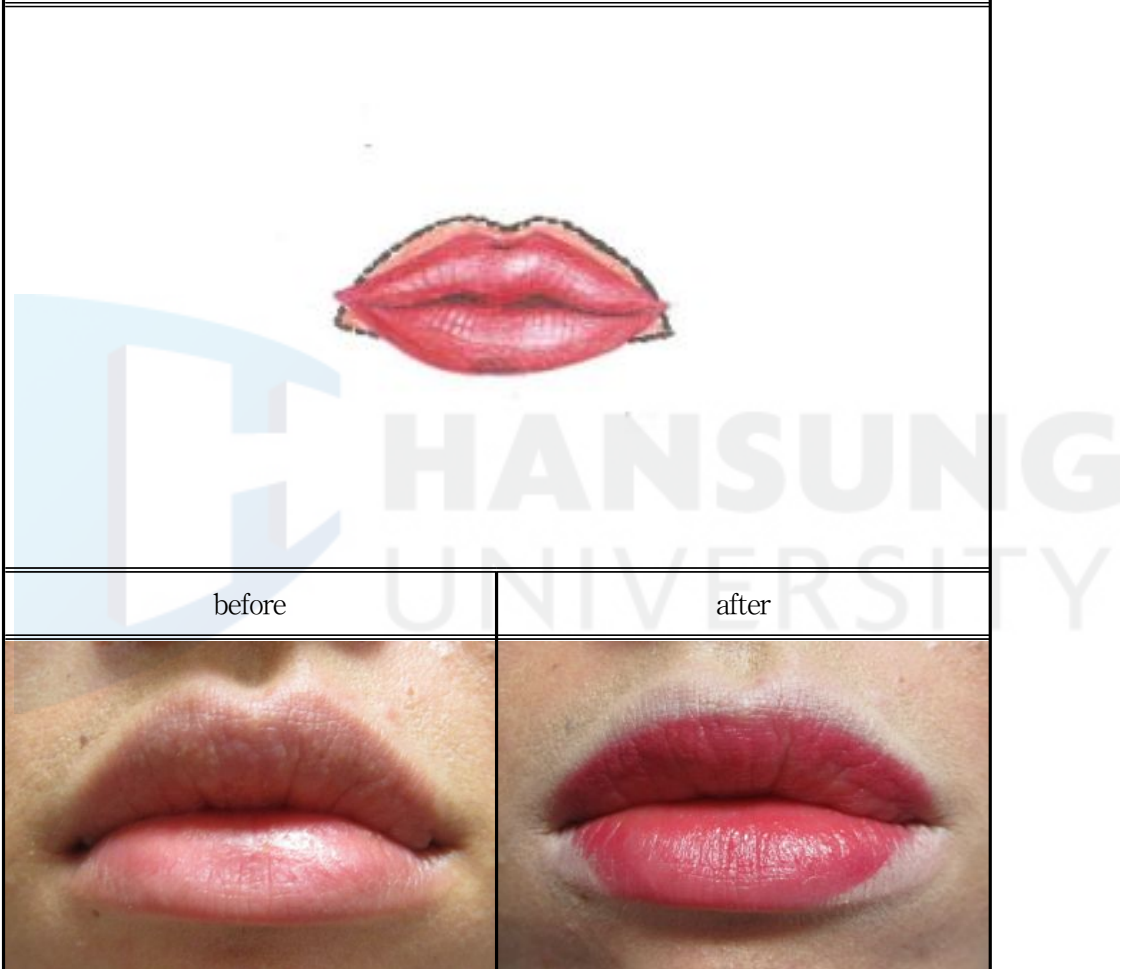


[표 30] 구각이 처진 입술의 수정 메이크업 제안

● 구각이 처진 입술의 수정 메이크업

구각을 1~2mm정도 위로 그려 처진 입술을 보완하여 활기 있어 보이는 얼굴을 연출하고 윗입술은 인커브 라인으로 그려준다.

이 때 구각을 너무 올려 아랫입술과의 조화가 부자연스럽지 않게 주의한다.



5. 얼굴이미지 유형에 따른 수정 메이크업 표현 기법 제안

동양인과 서양인의 얼굴을 비교 했을 때 동양인들은 얼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넓은 볼을 가지고 있다. 얼굴의 결점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착시현상으로서 하이라이트와 섀딩의 효과를 주고 싶은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얼굴 이미지 중 계란형의 수정메이크업은 가장 이상적인 얼굴형으로 귀 위에서 턱까지 사선 또는 삼각형으로 연결하여 자연스럽게 섀딩해 준다 [표 31] .

둥근형의 수정메이크업은 얼굴의 길이는 짧고 광대뼈 부위가 넓어 얼굴의 윤곽은 둥글고 이마가 좁다. 통통한 얼굴을 가름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 볼의 뒷부분에 섀딩 효과를 이마, 턱, 콧등을 약간 세로 형태로 길게 하이라이트 효과를 준다 [표 32] .

긴 형의 수정메이크업은 얼굴의 폭에 비해 길이가 길어 보이는 얼굴형으로서 하이라이트를 가로의 느낌으로 발라주어 긴 얼굴은 수평 분할하여 볼이 통통해 보이게 해주고, 헤어라인 부분과 턱끝 선에 어두운 섀딩 효과를 주어 긴 얼굴을 커버해준다 [표 33] .

사각형의 수정메이크업은 각이 진 턱 선과 이마 양 옆에 섀딩의 효과를 주어 얼굴의 길이에 비해 넓어 보이는 얼굴 폭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준다. T존 부위에 세로의 하이라이트 효과를 준다 [표 3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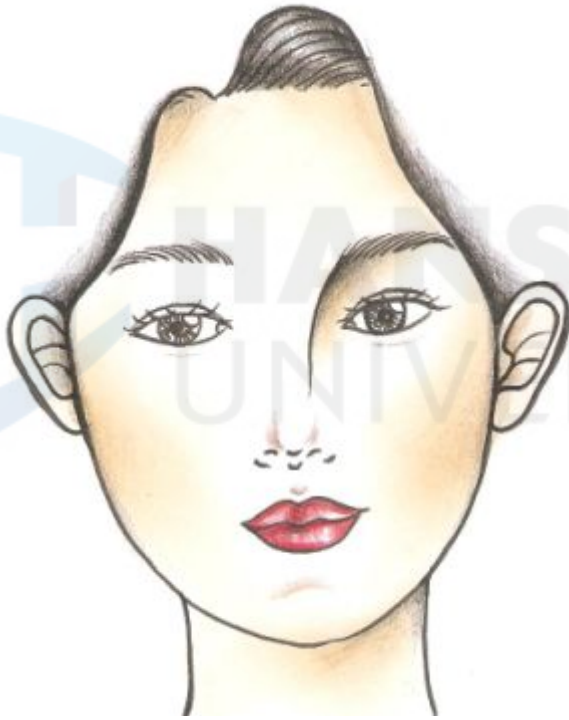
역삼각형의 수정메이크업은 이마의 넓이보다 턱 부분이 좁기 때문에 양쪽 아랫볼 부분에 하이라이트 효과를 주어 통통해 보이게 한다 [표 35] .

삼각형의 수정메이크업은 이마 넓이보다 양볼이 아주 넓어 이마 양끝에는 하이라이트 효과를 주어 넓어 보이도록 하고 양볼 부분은 섀딩을 주어 좁아보이게 한다 [표 36] .

[표 31] 계란형에 따른 수정 메이크업 제안

	● 계란형의 수정 메이크업 가장 이상적인 얼굴형으로 귀 위에서 턱까지 사선 또는 삼각형으로 연결하여 자연스럽게 새딩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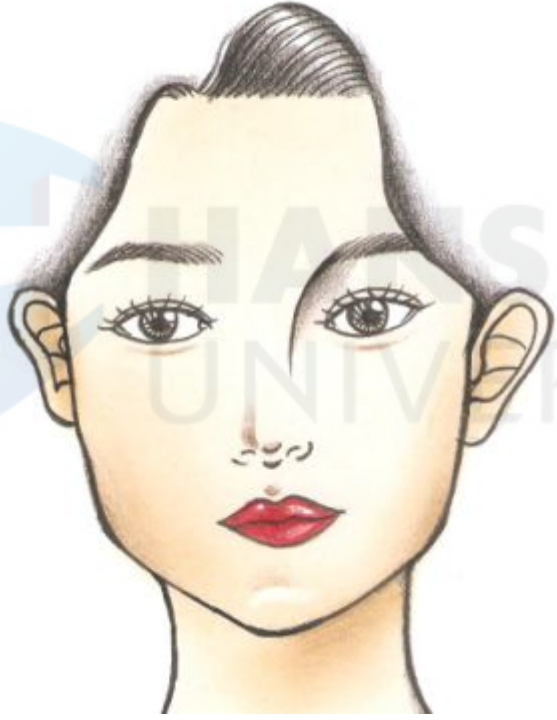
[표 32] 둥근형에 따른 수정 메이크업 제안

	● 둥근형의 수정 메이크업 얼굴의 길이는 짧고 광대뼈 부위가 넓어 얼굴의 윤곽은 둥글고 이마가 좁다. 통통한 얼굴을 가름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볼의 뒷부분에 섀딩효과를 이마, 턱, 콧등을 약간 세로 형태로 길게 하이라이트 효과를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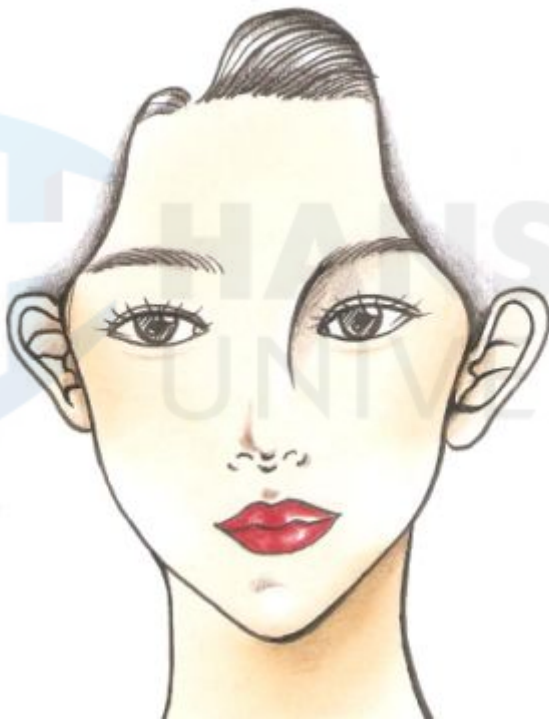
[표 33] 긴 형에 따른 수정 메이크업 제안

	● 긴형의 수정 메이크업 얼굴의 폭에 비해 길이가 길어 보이는 얼굴 형으로서 하이라이트를 가로의 느낌으로 발라주어 긴 얼굴은 수평 분할하여 볼이 통통해 보이게 해주고, 헤어라인 부분과 턱끝선에 어두운 섀딩 효과를 주어 긴 얼굴을 커버해 준다.
	

[표 34] 사각형에 따른 수정 메이크업 제안

	● 사각형의 수정 메이크업 각이 진 턱선과 이마 양 옆에 섀딩의 효과를 주어 얼굴의 길이에 비해 넓어 보이는 얼굴 폭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준다. T존 부위에 세로의 하이라이트 효과를 준다.
	

[표 35] 역삼각형에 따른 수정 메이크업 제안

	● 역삼각형의 수정 메이크업 이마의 넓이보다 턱부분이 좁기 때문에 양쪽 아랫볼 부분에 하이라이트 효과를 주어 통통해 보이게 한다.
	

[표 36] 삼각형에 따른 수정 메이크업 제안

	● 삼각형의 수정 메이크업 이마 넓이보다 양볼이 아주 넓어 이마 양 끝에는 하이라이트 효과를 주어 넓어 보이도록 하고 양볼 부분은 섀딩을 주어 좁아보이게 한다.
	

제 5 장 결론 및 제언

여성의 외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기대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인 미(美)를 추구하는 의미에서는 변하지 않는다. 특히, 신체부위 중 얼굴은 자신의 내·외적인 이미지가 가장 잘 표출되기 때문에 얼굴 이미지를 관리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이미지 관리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여성의 얼굴이미지 유형에 따른 수정 메이크업 표현 기법을 제안하고 메이크업을 통한 얼굴이미지 수정 및 보완 효과에 대한 인식과 활용도를 알아보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얼굴이미지를 관상학적 이미지와 성형미인의 이미지로 분류하였다. 관상학적 황금 비율은 국제 표준 얼굴은 1 : 1.618로 턱에서 눈썹까지, 입술에서 콧방울까지, 코에서 눈까지, 얼굴 길이와 너비 등 아름다운 얼굴에서는 수없이 많은 황금 분할이 확인되고 있다. 성형학에서의 황금 비율은 얼굴이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사람은 얼굴길이를 3등분했을 때 이마의 윗부분에서 눈썹까지의 길이(상안)와 눈썹에서 코끝까지의 길이(중안), 코끝에서 턱 끝까지의 길이(하안)가 같다. 얼굴 폭을 보았을 때에는 눈과 눈 사이의 안쪽간격과 눈의 크기가 같아야 하고, 입술의 폭은 양쪽 눈동자 사이의 간격과 같아야 한다. 즉, 1:1:1의 비율을 보인다. 그러나 서구화된 미인형과 한국인의 미인형은 차이가 있는데 한국인의 미인형은 서구미인에 비해 코는 약간 길고 턱은 짧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성의 메이크업은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대표적 모계시대에는 골계미와 추미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현대시대에서는 빌렌도르프 비너스 같은 비만한 여성, 스마트 워크시대에서는 감추지 않고 당당하게 풍만함을 과시하여 외적인 미보다 내적인 미에 대한 칭송으로써 또 다른 미적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현대사회에서의 얼굴이미지 관리는 계란형, 둥근형, 사각형 등의 관상학적 얼굴 유형 관리와 사회·문화 환경적인 관점에서 요구되는 얼굴이미지 관리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얼굴의 결점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착시현상으로서 하이라이트와 섀딩의 효과를 주고 싶은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얼굴이미지에 따른 수정메이크업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얼굴이미지 중 계란형의 수정메이크업은 가장 이상적인 얼굴형으로 귀 위에서 턱까지 사선 또는 삼각형으로 연결하여 자연스럽게 새딩해 준다. 둥근형의 수정메이크업은 얼굴의 길이는 짧고 광대뼈 부위가 넓어 얼굴의 윤곽은 둥글고 이마가 좁다. 통통한 얼굴을 가름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볼의 뒷부분에 새딩효과를 이마, 턱, 콧등을 약간 세로 형태로 길게 하이라이트 효과를 준다. 긴형의 수정메이크업은 얼굴의 폭에 비해 길이가 길어 보이는 얼굴형으로서 하이라이트를 가로의 느낌으로 발라주어 긴 얼굴은 수평 분할하여 볼이 통통해 보이게 해주고, 헤어라인 부분과 턱끝선에 어두운 새딩 효과를 주어 긴 얼굴을 커버해준다. 사각형의 수정메이크업은 각이 진 턱선과 이마 양 옆에 새딩의 효과를 주어 얼굴의 길이에 비해 넓어 보이는 얼굴 폭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준다. T존 부위에 세로의 하이라이트 효과를 준다. 역삼각형의 수정메이크업은 이마의 넓이보다 턱부분이 좁기 때문에 양쪽 아랫볼 부분에 하이라이트 효과를 주어 통통해 보이게 한다. 삼각형의 수정메이크업은 이마 넓이보다 양볼이 아주 넓어 이마 양 끝에는 하이라이트 효과를 주어 넓어 보이도록 하고 양볼 부분은 새딩을 주어 좁아보이게 한다.

본 연구는 수정메이크업을 실제 모델을 사용하여 디자인 연구를 시도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도된 바가 없는 얼굴이미지 유형에 대한 수정 메이크업 표현 기법을 다각도로 연구하였는데 의의가 있으며, 추후 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수정메이크업의 효과와 활용도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도서-

동아출판사(1983), 『동아대백과사전』, 서울:동아출판사
양두병(2000), 『미용 성형수술 어디를, 어떻게3』, 서울:명상.
전선정 외 3인 공저,(2001), 『미용미학과 미용문화사』 서울:청구문화사
조용진(2007), 『미인』, 서울:해냄
이현주 외(2010), 『THE MAKE-UP』, 서울:예림
강경화(2008), 『Make you up』, 서울:국제
이진용 외(2011), 『MAKE UP ART DESIGN』, 서울:청구문화사
장지연·장두열(2008), 『S라인스토리』, 서울:로즈앤북스
D.Paquet, 지현 역(1998), 『화장술의 역사』, 서울:시공사
Richard Corson, 김광숙 역(2010), 『헤어패션 5000년』, 서울:동서교류
Geert Hofstede, 차재호·나은영 역(1996), 『세계의 문화와 조직』,
서울:학지사

- 학위논문 -

- 김경하(2004), 「르네상스시대 인물화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특징」, 대구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남희(2010), 「동안(童顔)열풍에 따른 뷰티 트렌드와 수용행태 연구 : 메이크업과 화장품 산업을 중심으로」, 서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희(1990), 「성격분장의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김영란(2010), 「미용심리치료를 위한 자가 미용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서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경대학교 대학원
- 김은정(2003), 「메이크업의 선과 면에 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성(2011), 「관상학 이론에 의한 일러스트레이션 인물표현 연구 -얼굴 형태를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주영(2007), 「영화 속에 표출된 한국여성의 몸에 대한 사회적 의미:영화화'미녀는 괴로워'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언론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연(2002), 「여성의 다이어트 욕구의 사회적 구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필레(2004), 「메이크업 테크닉에 관한 연구 :인상과 색채 표현기법을 중심으로」, 한남대 사회문화과학 대학원 석사논문
- 문혜경(2002), 「김리적 특성과 의복태도 및 화장도와의 관계」,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주윤(2003), 「화장행위의 만족도와 대인관계 성향의 관련성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유정(2006), 「정치인의 안면 이미지 분석을 통한 호감적 이미지 제고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광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효정(2002), 「현대여성의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질적 연구,-화장, 헤어

- 스타일, 신체이미지, 성형수술, 의복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지니(2001), 「女性の 美學的價值變化分析에 따른 現代女性の FaceDesign에 관한 研究」,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어여름(2010), 「한국 미인형 비례에 기준한 고전누드화의 패러디 표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민선(2010), 「다문화 사회에 따른 미술교육과정의 방향」,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연(2005), 「이탈리아 르네상스 회화에 나타난 Make-Up의 특성에 관한 연구」, 중앙대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연희(1995), 「의복 및 신체만족도의 상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주(2005), 「남성을 위한 Portable Beauty Kit에 관한 연구:메트로섹슈얼 남성을 중심으로」,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창렬(2004), 「신체미술을 통한 표현적 특성에 관한 연구:1990년대 이후 신체미술을 중심으로」, 경상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세희(2009), 「현대패션에 나타난 탈중심화 현상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 은(2003), 「여성의 화장행동이 대인관계 및 심리적 안정에 미치는 효용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보현(2009), 「이미지 상승효과를 위한 메이크업 스타일 연구 - 얼굴형 중심으로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순득(2005), 「인상학에 따른 이미지메이크업의 표현기법」,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학술지 -

- 김희숙(1996), 「20세기 화장의 변천에 관한 연구 - 대중스타를 중심으로 -」, 『한국미용학회지』 제2권 제1호, pp27-52, 한국미용학회
- 서란숙(2007), 「시대별 한국여성의 미인상과 현대미용 성형외과적 미인형에 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제13권 제3호, pp45 한국미용학회
- 장상숙·김훈(2001), 「프랑스 절대 왕정 시대의 헤어스타일에 나타난 역사적 의미 연구」, 『한국인체 예술학회지』 제7권 제3호 pp35-42, 한국인체예술학회
- 정명선(2003), 「성인여성의 신체적 매력성 자아지각이 자존심과 외모관리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복식학회』 제5권 3호, pp161-179, 한국복식학회

- 인터넷 자료 -

- <http://blog.naver.com/yaoielf?Redirect=Log&logNo=110099002799>
- <http://blog.naver.com/deessehera?Redirect=Log&logNo=60068105894>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76208&imageNo=4>
- <http://blog.naver.com/hjyi0724?Redirect=Log&logNo=20114121846>
- <http://blog.naver.com/20something?Redirect=Log&logNo=70029520565>
- <http://blog.naver.com/inma20?Redirect=Log&logNo=150097504807>
- <http://blog.naver.com/inma20?Redirect=Log&logNo=150097796757>
-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0&docId=1338275
&imageNo=0&categoryId=200000877](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0&docId=1338275&imageNo=0&categoryId=200000877)
- <http://blog.naver.com/iskyi90?Redirect=Log&logNo=120023541921>
- http://arts.search.naver.com/service.naver?where=arts_detail&query=%B5%B5%BF

ABSTRACT

The Study on the Representation Methods of Modification Make-up according to facial image

Back, Go-eun

Major in Make-up Art

Dept. of Beauty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representation methods of modification make-up according to women's facial image and try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and utilization of modification and complement effects of facial image through the make-up.

The expectation about women's external beauty has the difference of sense of value according to the generation and the culture, but it didn't change essentially the esthetic pursuit. Especially, managing the facial image is the first of whole steps because the face is the representation of one's internal and external image, therefore the face is the most important part.

So this study is classified into two groups; physiognomical and plastic beauty images. At the physiognomical golden ratio, the international standard face is 1 vs. 1.618, and it is checked the countless golden parts from jaw to eyebrow, from lip to nose, from nose to eye and from face length to face width in beautiful face. At the plastic golden ratio, the

well-shaped face has the same length from top of forehead to eyebrow, from eyebrow to end of nose and from end of nose to end of jaw when divided three equal parts overall. Also, it has the same length from space between eyes to eye size and from lip width to space between pupils when we see the face width. In other words, it showed up 1 vs. 1 vs. 1. However, there are the difference between western beauty and Korean beauty. The latter has somewhat low and long nose and short jaw compared with the former.

To care the facial image, it is used to the high quality make-up methods to improve one's facial image instead of the plastic surgery. Human face has a lot of genetic factors related with personality like character, shape, size and etc, but it is changed the facial impression by the social environment, trend, health and ordinary habits in the process of growth. Therefore, we should improve our image by make-up to socialize with occupation, status, age, costume, situation and purpose because of the direct image.

Women's make-up has changed according to the generation, and typically the maternal society showed up the features of bone beauty, and the modern society showed up the feature of obese woman like Venus of Willendorf, and the twenty-first century smart work society shows up the esthetic features of bold expression of internal beauty rather than the external to show off the fullness without concealing. The care of facial image in the modern society can be classified into two groups; the care of physiognomical facial type like oval, circular and angular face; the care of facial image in terms of social, cultural, and environmental views. The care of facial image type through make-up is based on overall image care focused on the impression, and the harmony of color and shape of facial body parts is the most beautiful, and it can be corrected the flaw make-up.

To modify the facial flaw, highlight and shading effects are important as an optical illusion.

The study on modification make-up according to facial image is following. The oval is the most ideal face, and shade naturally from top of ear to jaw diagonally. The circular face has narrow forehead because of short facial length and high cheekbones. To look like slim face, shade on back end of cheeks and highlight on forehead, jaw and bridge of the nose vertically. Highlight horizontally to look like chubby cheek and shade from hair line to end line of jaw to cover the long face. Shade from angular jaw line to forehead to look like narrow facial width and highlight on T-zone on the angular face. The inverted triangle face has the narrow jaw, so highlight on downward of both cheeks. Highlight on the end of forehead to look like wide forehead and shade on cheeks on the triangle face.

This study used the real model of modification make-up, but has limit about design study. However it has the various meaning of representation methods of modification make-up about facial image type, and to be continued it will carry out the constant study about the effect and utilization of modification make-up based on it.

【Key Word】 modification make-up, facial image, physiognomical image.